

- 洞祭 -

황 의 호*

- I. 머리말
- II. 서해안 지역의 동제
- III. 서해안 지역 동제의 활용방안

I. 머리말

민간신앙은 무속신앙, 가신신앙, 공동체신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마을 공동체신앙으로 널리 행해지는 동제(洞祭)라고 할 수 있다.

서해안 지역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바다와 관련된 동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되나, 유교문화와 세계종교의 도입, 사회의 변화 등으로 쇠퇴되어 현재는 거의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제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며 대다수 민중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마을 사회에 통합과 일체감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마을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의 장을 통한 정체성 확인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최고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서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동제를 살펴보고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서해안 지역의 동제

1. 태안 황도 동제¹⁾

1) 당제

* 대천여자고등학교 교감

1) 충청남도·한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 1997, 島嶼誌 中, 제 6장 종교문화(이필영)에서 요약하여 옮긴 글임.

(1)

이 섬에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부터 사흘날까지 풍어와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당제’를 지내고 있다.

섬의 입도주(入島主)는 나주(羅州) 정 씨(鄭氏) 해주(海州) 오씨(吳氏)로, 정 씨는 큰 마을에 오 씨는 은거지에 각각 당을 세우고 제를 거행해 왔다. 그러던 중 약 60여 년 전인 1936년 경에 은거지의 오 씨 당이 허물어지자 다시 당을 세우지 않고 정 씨 당에서 함께 제를 지내게 되었다. 현존하는 당이 바로 정씨 당으로, 그 집은 30여 년 전인 1966년 경에 개축하여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곳 주민들은 당산 신령님의 신성(神性)을 강하게 믿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당집 기둥에 썩여진 다음의 글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建陽多慶 立春大吉 元堂天下太平春 開門萬福來 地上黃金家上富
掃地貴金出 海中美物船上滿 時和年豐 四海無事

그러한 목적으로 지내는 제는 정월에 지내는 당제와 8월의 신곡맞이제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정월제로 합쳐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산이 당산인데, 큰 상봉과 작은 상봉의 두 봉우리가 만나는 편편한 지점에 당집이 위치해 있다. 당집 주변에는 왜나무가 군(群)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 당집 앞의 큰 나무는 특별히 위하는 나무이므로 보존에 신경을 쓰고 있다.

당집은 원당과 산제당, 창고로 이루어졌는데, 부속 시설로 당집 앞에 추운 겨울철에 제의 주관자들의 추위를 덜기 위해 온돌시설을 두었다. 온돌 앞으로는 화덕을 갖추고 노구메를 짓는데 이용하고 있다.

원당은 네 귀퉁이에 굵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붉은색 기와를 얹은 단칸 건물이다. 기둥에는 위에 기록한 바 있는 제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글귀가 한자로 쓰여져 있다. 지붕 아래의 나무에는 당청을 입혀서 멋을 내었다. 집의 형태는 세로가 조금 더 긴 직사각형으로, 문은 쌍여닫이문이며, 좌향은 서북향(西北向)이다. 내부에는 ‘ㄷ’자형으로 선반을 두르고 그 위에 다섯 점의 화상(畵像)을 걸어 놓았다.

왼쪽 벽에는 용왕각시당(龍王閼氏堂)이 있고, 전면에는 왼쪽부터 성조천신(成造天神), 군왕(軍王)님, 삼불제석(三佛帝釋)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동서남북이십사방잡귀축출장군(東西二十四方雜鬼逐出將軍)이 걸려 있다.

삼불제석 화상의 아래 부분에 ‘단기사천이백팔십년사월이십일 봉안(檀紀四二八十年四月二十日 奉安)’이라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화상은 1947년에 봉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 일본인에 의해 1944년에 불 탄 화상을 곧바로 봉안한 것으로 추측

된다. 이 새로 봉안된 화상에 대해 주민들은 이전 것에 비하면 졸작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예전의 군왕장군 화상은 당집의 문을 열면 그 위엄 때문에 놀라 기절할 정도였는데, 지금의 것은 그러한 위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반 위에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동물상(動物像) 두 개가 있었다.(박계홍, 1973) 그 동물상은 그 이후의 1985년 조사에서 실물을 볼 수 없었다고 보고된 것으로 보아 1985년 이전에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에 대해 주민들은 나쁜 것이 침범했을 때 장군이 타고 싸우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진 말(馬)로,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산신당은 원당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소당’이라고도 불린다. 그 곳에는 고기를 올리지 않고 포, 삼색실과, 떡만을 올린다. 그 규모는 원당 보다 조금 작으며, 붉은 기와를 얹은 단칸집이다. 벽은 기둥을 세우지 않고 시멘트로만 처리하였고, 전면에 문을 크게 냈다. 문은 쌍여단이문으로 붉게 칠했다. 내부에는 정면에만 시멘트로 단을 만들었으며, 그 위에는 산신도 한 점이 걸려 있다.

산신당 오른쪽의 허름한 건물은 고기를 보관하고 다듬는 장소로 사용되는 육간(肉間)이다. 그 건물에는 문도 달지 않았으며, 내부에도 아무런 시설물이 없다.

예전에는 원당에 주신인 진대를 모셨다고 하나 지금은 성주 이하 다섯 장군을 포함한 열두당을 모시고 있다. 제를 지낼 때는 그 열두당과 더불어 ‘접당’으로 스물네 당을 모신다. 이러한 신격의 구체적인 실체와 봉안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곳에서 모셨던 진대서낭과 관련해서 주민 중 한 분은 진대서낭을 태울 때 화상의 뒷 면에 ‘군왕장군’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들었음을 통해, 서낭은 진대나 각시가 아니라 군왕장군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그대로 믿는 데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주민의 대다수는 진대[巳]를 주신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는 진대와 상극인 돼지[豚]의 사육을 금한다. 돼지를 사육하였을 때는 돼지는 잘 자라지만 그 집의 가족원이 병신이 되거나 죽게 되는 등의 해를 입게 되므로 아예 사육하지 않는다. 특히 돼지고기를 먹고 배를 타면 배가 난파당한다거나 못들어오는 등의 일이 발생하므로 돈육 먹는 것까지를 금했다.

당제 지내는 것을 ‘서낭님 모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 사이에는 구체적인 신격의 직능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은 신격을 구분해 부르기 보다는 통칭 ‘서낭님’으로 부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3)

제를 앞두고 약 보름 내지 이십일 전에 개최되는 대동계에서 제를 주관해야 하는 ‘당주’와 그를 도와 줄 화주 한 명을 선출한다. 생기복덕을 따져서 운이 닿는 사람 등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가린다. 이때 당주 운이 닿았어도 부인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러나 반대로 부인이 운이 닿았는데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사람을 당주로 삼는다. 그러나 대개 내외가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당주로 선출되면 이듬해 당주가 선정될 때까지 일년간은 각종 금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대문에 금줄을 띠우고 황토를 퍼 둔다. 금줄은 일년간 그대로 두어야 하므로 흰 종이 대신 소청을 잘라 끼운다. 황토 역시 대문 앞에 각기 한 무더기씩 퍼 놓는데, 일년 동안 지저분해지면 때때로 갈아 놓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외형상의 금기 이외에도 선출된 순간부터 초상집이나 제사집에는 가지 않으며, 남의 싸움 시비에도 참견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금기 준수를 위해 당주는 부모상을 당해도 상주 노릇을 할 수 없었으며, 형제의 혼인에도 참석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 이러한 것을 통해 제의와 관련한 금기 준수가 매우 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주의 이러한 금기 생활과는 별도로 중선배 선주들 역시 당주 못지않게 근신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날마다 비린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 등의 삼가는 생활을 했으며, 집 앞에 금줄을 띠우고 황토를 폈다. 그러한 생활은 풍어를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며 일년을 단위로 계속되었다 한다.

화주는 제의의 전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장을 보고 경비 산출 등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장은 연륙되기 이전까지는 배를 이용해서 서산장을 보았으며, 지금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다를 뿐 여전히 서산장을 이용하고 있다. 제물로는 통소 한 마리(산적, 소머리로 사용), 명태포, 술, 대추, 밤, 꽃감, 소지종이, 초 등을 구입해 온다. 이외에 당주는 떡과 메를 지어서 제물로 함께 사용한다. 소는 약 10여 일 전에 적당한 집에 미리 맞추어 놓는데, 특별히 부정하지 않은 집의 것으로 구입한다.

제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중선배 선주들이 추렴해서 마련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추렴을 해서 충당하고 있다. 선주들에게 제비를 걷는 행위를 ‘당수렴한다’라고 표현한다. 제비의 액수는 시대를 거둬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 1973년에는 약 20만원이 소요되었으나(박계홍, 1973), 1986년에는 배 한 척당 29만원씩을 12척에서 거두어 총 348만원이 소요되었다.(주강현 1987)

제를 앞두고 부정이 있을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월이 낳달(産月)인 임신부는 마을에서 나가야 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친척집이나 친정집으로 갔으며, 만약 그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삼칠일을 지내고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를 마치면 곧바로 돌아왔다. 1986년부터는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민들은 세상이 변했기에 구습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선달 그믐부터 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민들 모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4)

현재 당제는 당주와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김금화 만신에 의해 치러진다. 김씨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부(主巫)로써 굿을 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마을 내의 당골에서 의뢰해서 안면도, 원산도, 당진 등지에서 큰 무당을 불러서 제를 지냈다. 지금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 시작해서 초사흘날 제가 끝나지만 예전에는 사흘간 굿을 해서 닷새날 파제했다. 그러나 1970년 즈음에는 직업무를 따로 부르지 않고 당주와 선주들이 중심이 되어 제를

지내기도 했다. 당시의 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이튿날 오후 당주를 비롯한 집사자들이 당에 들어가서 제물을 진설하고 자정을 기해 원당제를 거행했다. 그런 후 새벽쯤에 산신제를 거행한 후 하산하여 파제에 들어갔다.

이렇듯 간단하게 치러졌던 당제는 1977년에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다. 당시에 주민들의 구술에 의해 복원된 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정월 초이튿날 오후 3~4시 경이 되면 당주 내외와 무당 일행은 제당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군청이나 인근에서 구경을 와서 약 100~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진행된다. 당주는 한복을 입는데, 남자는 두루마기까지 갖추어 입으며, 신발과 속옷까지를 새 것으로 마련한다.

먼저 제당 주변을 정돈하고 제당마당에 흰 종이를 켜 금줄을 띄운다. 그런 후 한쪽에서 소를 잡기 시작한다. 소 잡는 것이 완료되면 고기를 육간으로 쪼개서 제물을 마련한다. 다리나 머리 등의 부위는 삶아서 덩어리째 쓰고, 갈비 등은 산적을 만든다. 산적은 고기를 주먹 크기로 잘라서 3~4자의 신하대에 꿰어서 구워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마련된 12부위(앞, 뒷다리 구분), 머리, 가죽, 낭역, 간, 갈비 등으로 구분)의 고기를 큰 그릇에 담아 원당 가운데에 가져다 놓는다. 그런 후 당주가 재배를 하면 김금화 만신이 축원을 해 준다. 이렇게 지내는 제를 ‘피고사’라 한다. 피고사가 끝나면 올렸던 고기를 내려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12시가 되도록 선주들을 중심으로 배치기를 함께 하며 신명을 돈운다. 그런 다음 각 선주들은 각자의 뱃기를 가져다가 당의 담 주위에 빙 둘러놓는다.

이 후 밤 12시를 기해서 본제를 지낸다. 피고사 지낸 고기 이외에 새로 같은 방식으로 고기를 마련해서 열두 당에 골고루 나누어 놓으며, 백떡 한 접시, 술 한 잔씩을 열두 당에 각기 올린다. 제물은 군왕장군 앞에 먼저 진설한다. 후에 ‘접당’이라 하여 열두 당에 한 컵씩을 더 권다.

가장 중요한 제물로는 당주가 제장에서 직접 지은 ‘노구’이다. 노구는 낫쇠로 만든 술에 석 되 세 홉의 쌀로 메를 지은 것이다. 노구 짓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쌀은 당주가 미리 집에서 씻어서 마련해 간다. 쌀 씻는 물도 여느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당제에만 사용하는 물을 길어다가 사용한다. 그 물은 제당 뒤의 바위틈에서 샘솟는데, 이를 달리 부르는 명칭은 없다.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았기에 소중한데, 이를 달리 부르는 명칭은 없다.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았기에 소중한데, 이를 달리 부르는 명칭은 없다. 지금은 마을에서 시멘트로 포장공사를 해 놓았다.

그렇게 해서 노구지을 쌀이 마련되면 노구술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일단 뚜껑을 덮었으면 서낭님 앞에 놓을 때까지는 절대 뚜껑을 열지 않는다. 불은 깨끗한 곳에서 베어온 참나무를 잘게 쪼개서 때며, 밥이 다 되도록 당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노구는 술째 올리는데, 원당에 술을 가져다 놓기까지 그 불을 꺼치지 않아야 한다. 열두거리의 곳이 진행되는 과정에 같은 방식으로 메를 총 3~4전 짓는다.

이렇게 해서 노구가 중앙에 안치되면 당주와 주무가 당집 안으로 들어간다. 먼저 당주가

열두 당을 돌아가면서 헌작과 재배를 반복한다. 그러면 선주 중 두 명씩 번갈아 들어와서 재배를 하면 주무가 그를 위해 비손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온다년은 을축년 올습니다. 달에 월공은 서산군 안면을 황도리 올습니다. 날에공수는 초이틀 상공수 올습니다. 서낭님 전에 대동성심으로 이 정성드리나니, 일년은 열두달 과년은 열 석달, 360일이 돌아가도 대흑선 하나같이 다, 명을 쥐도 같이 주고, 복을 쥐도 같이 되게 점지하시어, 대흑선관 나갈 적에, 가는 길에 회작없이, 오는 길에도 회작없이, 대흑선관 다 바다에 나가면은, 바다 장군 지켜주시고, 서낭님 전에 뚝구받들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을 막아주시고, 일년 열두달 과년 열석달이 되도 대흑선관 일등기 앞세워 점지하시고, 대흑선관 다 열배면 다 열배면 다(배이름 외며), 대흑선관과 다 승전복을 올리고 봉기를 돛 위에 달고 들어오게 점지하여 주시오.(박한성 무녀 구술, 주강현 1987)

비손이 끝나면 선주의 길운을 짚는다. 주무가 쌀을 집어 짹수가 되면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 짹이 맞지 않으면 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그럴 경우 그를 위해 다시 축원해 준다. 특히 앞날의 예언과 더불어 바다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주의할 것을 일러준다. 이렇게 진행되는 개인적인 축원이 끝나면 대동소지와 배 소지를 올린다. 배 소지를 올릴 때는 먼저 선주가 절을 하고 나서 화덕과 선원들의 것을 합동으로 올린다. 그 덕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 배올습니다. 작은 정성 올립니다. 일년 열두달 과년 열석달 하더라도, 다 재난없이 원없이, 그물에도 철그물이 되게 하옵시고, 그저 동서를 하나같이 몸 건강하게, 열동서면 열동서 열한동서면 열한동서, 명과 복을 함께 주시고, 일년 열두달 억만 재산을 벌게 해주시고, 한물 때 던지면 천여 동 만여 동 지수시켜 달라고 비읍니다.(박한성 무녀 구술, 주강현 1987)

이것을 끝으로 일단 제는 끝이 난다. 그러면 누구나 당에 들어올 수 있으며, 엄격한 금기도 일단 해제된다. 이윽고 새벽이 되면 선주들에게 길지를 나누어 주면 그것을 뺏기에 달아매고서 각자 자기 배로 가서 떡시루와 메를 마련해서 뺏고사를 지낸다.(서산민속지, 1988) 근래에는 뺏동서들이 할당된 쇠고기를 가지고 달려서 내려가는데, 이때 빨리 내려가는 배가 풍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경쟁이나 하듯이 서둘러 하산한다.

선주들의 하산 직후 당주는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당은 ‘소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에는 원당과는 달리 고기를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신당에는 떡, 포, 삼색실과만을 올리며, 메와 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산신당에서의 제는 간단하며 그 제가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서 뺏마당에서 거리굿을 하면서 파제를 한다. 1985년 경부터는 선창가에서 선창굿을 끝으로 파제를 하며 ‘희식’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의 절차가 끝나면 초사흘날 본격적으로 봉기 풍어놀이를 논다.

제를 마친 후 당주 내외는 매월 초이튿날 당집에 올라가서 시루떡과 노구를 마련해서 기도를 올린다. 그때 깨끗한 물을 떠 가지고 가서 열두 당에 한 그릇씩 올린다.

제를 마친 후에도 당주는 한 해 동안 근신해야 했는데, 회의를 통해 1995년부터 제를

끝내고 곧바로 금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일 년 동안 여러 금기를 준수하는 일이 지금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 굴부르기

음력 정월 보름날 저녁이 되면 아낙네들이 주축이 되어 굴이 풍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굴을 불렀다. 이를 ‘굴부르기’라고 표현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을에서 보름밥과 나물을 깡통에 거두고, 여자들이 주동이 되어 풍장을 치면서 선창가로 간다. 가져간 것을 모아 놓고 아낙네들이 “굴아, 다른 곳으로 가지말고 우리 마을로 오라”라고 선창을 한다. 그러면 죽 서있던 아이들이 바위에 붙어서 굴 시늉을 하면서 “예”라고 대답한다.

3) 신곡맞이제

음력 팔월에 신곡맞이제라 해서 정월의 당제와는 구분되는 제를 지냈다. 이 제는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2. 수룡동 당제(홍성군 서부면 판교리)²⁾

1) 수룡동의 위치와 지형

수룡동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최서단(最西端)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마을로, 마을 앞으로는 서해의 보고(寶庫)인 천수만(모산만)이 펼쳐져 있다. 수룡동 좌·우로는 서부면 남당리와 결성면 성호리 해안과 연결되어 있고, 마을 앞 바다 건너에는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와 마주하고 있다.

한편 용두 정수리 부분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껏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산을 마을 사람들은 ‘당산(堂山)’ 또는 ‘신령산(神靈山)’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현재 용미에는 마을 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당제를 비롯한 마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수룡동 마을의 형성과 변천

역사적으로 수룡동은 조선조 때 선소(船所)와 선창(船倉)이 있었음은 물론, 결성현의 수군(水軍)이 주둔했던 군사 요충지였다. 따라서 선창에는 방선(防船)과 병선(兵船), 그리고 사후선(伺候船) 등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수군군기고(水軍軍器庫)와 짐물고(什物

2) 이관호, 2001, 대동의 한마당이 펼쳐지는 서해안 풍어제의 마지막 보루 「수룡동 당제」에서 옮김.

庫)가 있었다. 또한 고려 말에는 삼별초군이 이곳 수룡동으로 들어와 결성 감무를 잡아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수룡동은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서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물산(物産)이 풍부하여 항상 인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잇점은 풍부한 역사와 해양 문화를 간직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항구마을로서의 이러한 전통은 최근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9년 이곳은 ‘판교항’이란 공식명칭과 함께 1종항으로 승격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근에서 최대의 안강망 어선을 소유한 항구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점차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어구들이 최신 장비로 바뀌면서 지리적으로 협소한 판교항은 그 수요와 욕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3종항으로 다시 격하되었다. 이때부터 수룡동으로 몰리던 어업인구는 다시 다른 곳으로 분산되기 시작하여 점차 항구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채 조그만 한 어촌마을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천수만의 풍부한 어장과 수산자원은 지금껏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주소득원이 되고 있다.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당산의 제당터에서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차려 놓고 서해의 용왕신에게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수룡동은 홍성 서부와 보령 천북을 잇는 홍·보 지구 방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포구로써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홍·보 지구 방조제가 가로막히면서 바다가 아닌 담수호로써 선착장만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 포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수룡동 사람들은 수 백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생업터전과 전통문화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즉 포구가 없어지면서 생업터전을 홍·보 지구 방조제로 이동하여 어로활동을 계속 하고 있음은 물론, 근대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신시하거나 잊혀져 가고 있는 당제를 옛모습 그대로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3) 수룡동 사람들의 삶과 문화

수룡동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를 주 생업현장으로 하여 살아오고 있다. 현재 수룡동은 47가구에 남자 61명, 여자 74명으로 총 135명이 거주하는 조그마한 어촌마을이지만 30여 년 전 안강망 사업이 활발했던 시절만 하더라도 100여 호가 넘는 정도로 마을이 번성하였다. 따라서 돛배가 인근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대규모 안강망 어선도 많이 부렸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령층이 높아져 고령화 추세를 보임은 물론, 포구의 쇠퇴로 어선의 규모가 소형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총 47가구 중에서 42호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가구 역시 반농반어(半農半漁)를 하는 등 어촌 마을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수룡동 사람들이 주로 어획하는 수산물을 살펴보면 우선 봄에는 쭈꾸미와 도다리, 광어, 우럭 등을, 그리고 여름에는 꽃게를 주로 잡는다. 또한 가을철에는 오징어, 대하, 망둥어

등을 어획하나 겨울철의 경우에는 대개 굴 채취와 김 양식 등으로 소득을 올린다. 그러나 최근 마을 앞 바다가 막히면서 굴이나 김 양식업 등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한편 수룡동의 경우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두 어촌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마을이기도 하다. 그 하나는 충청 서해안의 전형적인 어로문화를 접하고 살아온 원주민 집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해도 지역에서 어촌생활을 하던 이주민 집단이다. 즉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웅진 지역에서 어촌생활을 하며 살아오던 180여 명의 사람들은 피난선을 타고 이곳 수룡동에 정착하였는데, 그 중 일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주도적인 입장에서 마을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관은(75세)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수산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도 신망을 얻어 이 마을에 정착한 이래로 지금까지 마을의 어른으로서 당제를 비롯한 마을의 대소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의 서부 해안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갈 수 없는 곳인 황해도의 생활문화를 동시에 엿볼 수 있음은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4) 수룡동 당제(堂祭)

(1)

수룡동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껏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정월 보름날 서해 바다를 지키는 용왕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수룡동 당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면서부터 당제를 지냈다고 전할뿐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마을이 형성된 시기가 약 400여 년 전이라고 하는 구전과 조선시대 이곳에 선창과 수군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수룡동 당제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룡동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을공동 소유의 당산에서 마을공동으로 서해의 용왕신에게 당제를 올리고 있다. 그 믿음과 열정 또한 매우 대단하다. 현재 수룡동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외래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당제에 대한 믿음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해 당제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한편 근래 들어 수룡동 당제는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겪는다. 한국전쟁시 황해도로부터 들어온 이주민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황해도식의 당제를 자연스럽게 전해 주었으며 원주민들 역시 이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였던 것이다. 즉 충청도식 당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당제의 규모나 웅장함, 그리고 배치기 노래의 리듬 등 황해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현상들을 조금씩 보탬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당제가 지금껏 치러지고 있다.

특히 수룡동 당제의 경우 아직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자료로 이를 발굴하여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 풍부한 문화량과 서해안 당제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한 채

전승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민속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2~3곳에서 간단히 그 실태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2)

① 제당의 위치와 형태

당제는 용의 형국으로 마을 뒤편에 있는 당산에서 지낸다. 제장(祭場)은 당집 건물이 아닌 자연제당으로 용의 머리 중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을 비롯하여 멀리 천수만 앞 먼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곳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서도 당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한다.

제단은 약 8평 정도의 자연제단으로, 당수나무인 소나무 두 그루 아래에 석축을 쌓아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다. 제를 지낼 때에는 추위와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천막으로 임시제당을 짓는다. 임시제당은 당제가 끝나면 곧바로 철수한다.

② 제의 목적과 당의 신격(神格)

당산풍어제의 주된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에 있다. 특히 바다를 생업현장으로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뱃길에서의 무사함과 풍어를 기원하는 일이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은 이들 어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탈피와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최근에는 당제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의 단결과 화합의 자리가 되는 데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당제를 보존·계승시켜야 한다는 측면도 제를 지내는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다.

대상신은 바닷가이니 만큼 용왕신을 주신(主神)으로 모신다. 즉 수룡동에서는 당제를 지낼 때 다섯 몫의 제물을 마련하는데, 이는 다섯의 신들에게 바치기 위함이다. 다섯 신들은 당각시·당할아버지·당할머니·산신(山神)·지신(地神) 등으로 오당(五堂)을 모시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주신(主神)은 여신(女神)인 당각시이다. 이 당각시가 여신으로서 서해의 용왕신인 것이다. 예전에는 배마다 당각시를 배서낭으로 위했기 때문에 늘 여러 화장품이나 치마·저고리, 실·바늘 등의 여성용품을 함에 넣어 봉안하였다고 한다.

(3)

① 제전(祭前)의 준비

a. 당주 선출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에 지내는 당제에 앞서서 깨끗한 사람으로 ‘당주(堂主)’를 내고 축원을 전문적으로 해 줄 경쟁이[經巫]를 부른다. 즉 음력 정월 초이틀이 되면 마을에서는 대동회의를 개최하여 당제에 관한 일을 상의하고 당주를 선출한다. 예전에는 한해 전에 미리 당주를 선출하기도 하였다. 당주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선출한다. 일단 당주로 정해지면 일년 내내 부정이 없도록 정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근래에는 정초에 당주를 선출한 다음 모든 제의가 끝나는 대로 당주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번거로움이 있어 15년 전부터는 마을이장이 당제에 관한 일체의 일을 맡아 제를 주관하고 있다. 즉 현재는 마을이장이 당주가 되어 초청된 무당과 함께 제를 지내는데, 여기서 무당은 주로 축원만을 담당할 뿐이고, 제물 준비에서부터 제의 진행 등 일체의 과정은 이장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다. 한편 수릉동의 경우 인근 다른 지역과는 달리 타 지역에서 무당을 초빙하지 않고 전형적인 충청도 굿인 앓은굿을 하는 경쟁이로 서부면 관내에서 주로 초청한다.

b. 마을의 정화(淨化)와 금기(禁忌)

당주가 선출되면 마을 사람들은 당제 지낼 준비를 한다. 서너 명씩 모여서 자연스럽게 금줄을 꼬고 샘을 품으며 마을 이곳저곳을 깨끗이 청소한다. 금줄은 왼새끼에 길지를 끼워 당주집 대문에 매달아 놓는다. 그러므로써 신성함을 표시하여 부정한 것의 출입을 막는다. 아울러 마을 뒤편에 있는 천마산에 가서 황토를 가져다가 당주집 대문 앞 양쪽에 한 무더기씩 놓는데, 마을사람들은 이를 ‘금토(禁土)’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주집 이외에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황토를 대문 앞에 뿌려 놓는다. 그런 다음 당우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마을에는 여러 개의 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주집과 가장 가까운 우물을 그 해 당우물로 정한다. 우물 청소가 끝나면 뚜껑을 덮어두는데, 이는 우물물을 깨끗이 하기 위함이다.

특히 제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주민들의 금기 또한 대단하다. 예로부터 지금껏 당산에 있는 나무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심지어 마른 나무 가지나 솔잎조차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법이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반드시 화(禍)를 입는다고 한다.

c. 제비(祭費) 마련과 비용결산

제비는 정월 초닷세경에 걸립으로 장만한다. 예전에는 각 가정에서 쌀 3되씩을 직접 당주집으로 가져다 주었으나 근래에는 이장이 중심이 되어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이장에게 가져다 주기도 한다.

d. 장보기

제물은 광천장에서 구입한다. 제물 구입은 당주가 정갈한 사람을 사서 준비하도록 시킨다. 이때 장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불하는데, 정갈하게 지켜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하루 일당을 이틀로 따져 준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또한 물건을 구입할 가게에 부정이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 부정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구입한다. 제물로는 황소머리 2개, 삼색실과, 초, 소지종이 등을 구입한다. 여기서 소머리뼈는 제의가 끝나면 반으로 쪼개어 당산 서쪽 바닷가 나무에 매달아 둔다. 제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흑여 짐승이 먹어 부정이 탈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제기는 당제

를 위한 몫으로 마을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장만을 하지 않으나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자리는 매년 구입한다.

e. 제물장만

제물은 당주집에서 장만한다. 제물로는 소머리, 백설기, 팔시루, 삼색실과, 포, 술 등이 준비된다. 이때 제물은 당각시,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산신, 지신 몫으로 각각 다섯 상을 차리는데, 상당제와 거리제 모두 동일하다. 단지 상당에는 백설기 시루를 올리고, 거리제에는 팔시루를 올리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술은 초 닷새날 쌀 한말에 누룩 3되로 담근다. 술이 완성되면 제 지내기 하루 전에 당주는 징을 쳐서 마을사람들에게 술이 다 되었으니 한 병씩 가져가라는 신호를 한다. 각자 뱃고사를 지낼 때 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근래 이장이 당주로써 당제를 담당하면서부터는 아주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그렇지만 지금도 직접 불을 때서 떡을 만드는 등 제물을 정성껏 마련한다. 이와 같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제물을 준비할 때에는 지금도 온갖 정성을 다한다.

(2)

a. 물 달아오기

당제에 앞서 ‘물 달아오기’ 행사를 치른다. 당제 준비를 마친 후 마을 청년들은 각자 손에 빈 병을 하나씩 들고 물을 달려간다. 수룡동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잘 나는 인근 지역에 가서 물을 달아오는 것이다. 부근에서 가장 높은 천마산 줄기의 산에서 솟는 샘물을 병에 담아서 병 입구를 솔잎으로 막아 거꾸로 들고 마을로 돌아온다. 솔잎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천마산의 풍부한 수량(水量)을 수룡동으로 옮긴다는 믿음에서 행한 것이다.

b. 상당제(上堂祭)

· 뱃기 세우기

배를 부리는 선주들은 열 사흘날 아침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배의 수만큼 뱃기를 안마당이나 대문에 세워 둔다. 그런 다음 밤이 되면 집안에 세워 두었던 뱃기를 가지고 당주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당주집에 뱃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주집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한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문 앞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당주가 당일 밤 12시가 넘어 금줄을 걷으면 서로 먼저 들어가 마당에 뱃기를 세워 놓는다. 그러나 당주를 이장이 담당하면서부터 뱃기를 마을회관에 세워 놓았다가 상당제때 당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한편 당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뱃기 이외에도 당제 기간동안 선주집 마당에는 뱃기를 계속하여 세워 둔다.

· 당오르기

제 당일인 보름날 아침 9시가 되면 당주집 마당(요즈음은 마을회관)에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무당(경쟁이)이 당제의 시작을 알리는 징을 한번 치면서 비손을 한다. 이어 마을 사람들은 풍물패를 앞세우고 당산으로 향하는데, 이때 당주는 참나무로 만든 횃대에 불을 붙여 들고 제일 먼저 앞장을 선다. 횃불을 밝히고 가는 것은 혹시 모를 부정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당주 뒤를 풍물패와 무당, 그리고 제물을 진 사람, 뱃기를 든 선주들 순으로 행렬을 지어 오른다. 기를 올릴 때에는 연령이 많은 분들이 먼저 하지만, 내릴 때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한다. 다른 어촌처럼 기를 올리고 내릴 때 서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당 주위에는 천막을 쳐 놓아 바람이 들지 않게 한다. 그러나 예전에는 천막도 치지 않고 제를 지냈었다. 당제를 지낼 때는 온갖 정성을 다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천막을 치지 않고, 날씨가 아무리 사나워도 무서운 줄 모르고 지내 왔다고 한다.

· 부정풀이

당에 도착하면 무당(경쟁이)은 온갖 부정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당 안으로 들어가 부정풀이를 한다. 사발에 고추와 숯을 넣은 물을 가지고 축원을 하면서 당 주위를 한 번 돈 후 이를 당 밖으로 버린다. 마을사람들은 부정풀이가 끝나기 전에는 당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 본제(本祭)

부정풀이가 끝나고 제상이 차려지면 경쟁이가 본제(本祭)를 지낸다. 본제는 경쟁이의 독경(讀經)에 의한 축원으로 구성된다. 경(經)이 읽어지는 사이사이에 선주와 마을사람들은 당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고 복(福)을 기원하는 의미로 돈을 바친다. 이와 같이 서너 석(席)의 앉은곳을 한 후 경쟁이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당산소지→대동소지→당주소지→선주소지 순으로 올리는데, 선주소지는 복 받는 행사와 겹해 실시한다. 이어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당산 신령님으로부터 복 받는 행사를 한다. 마을 이장이 나이 어린 선주부터 한 명씩 호명하면 호명 받은 선주들은 제단으로 나와서 복(福) 돈을 놓고 절을 한다. 이때 경쟁이는 선주를 위해 축원을 하면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경쟁이는 선주에게 제주(祭酒), 백설기, 길지(吉紙) 등을 나누어준다. 고사 덕담을 받은 선주들은 이어 기를 내린다. 선주는 기를 내릴 때 경쟁이에게서 받은 떡과 고기를 길지에 싸서 뱃기 끝에 매단다. 선주들의 복 받는 행사가 끝나면 잠시동안 제단 앞에서 풍물을 치며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상당제를 마친다.

· 당산 내려오기

상당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면서 기를 앞세우고 당산을 내려온다. 이때 제단 바로 아래에서 마을 기(旗)를 세워 놓고 경쟁이가 잠깐동안 축원을 한다. 당제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간다는 인사인 것이다. 이어 당주집(마을회관)으로 내려온 일행은 해산 행사를 한다.

· 해산행사

해산 행사는 마을 기를 세워 놓고 개인축원을 하는데, 호명하는 대로 한 사람씩 나와서 기를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경쟁이가 축원을 해준다. 개인 축원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뱃고사 준비를 한다.

c. 뱃고사

· 뱃기 축원

뱃고사 준비를 하고 갯가로 나온 선주들은 다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기를 내린다. 쌀이 담긴 함지박을 무당이 먼저 바닥에 내려놓으면 선주들 역시 순서대로 각자 준비한 쌀꽃반에 뱃기를 쏜다. 그러면 무당이 축원을 해 준다. 이어 무당은 잡귀잡신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가지[東桃枝]로 만든 화살에 시루떡을 끼워 사방으로 쏘아 댄다.

· 뱃고사

뱃기 축원이 끝나면 이어 선주들과 그 부인들은 뱃기와 제물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배로 가서 뱃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집집마다 대동소이 하지만 대개 시루, 탕, 과일, 고기, 조기 등을 마련한다. 배에는 선주와 가족만이 올라간다. 제물은 배 중앙(함판) 한 곳에만 차리지만, 술은 이물·고물·함판 등에 각각 따라 놓는다. 뱃고사를 지내면서 선주는 ‘물아래 참봉, 물 위 참봉 많이 운감하시오’라는 덕담을 곁들인다. 뱃고사가 끝나면 서로 옮겨 다니면서 술과 음식을 나눠먹기도 한다. 어떤 선주들은 뱃고사를 끝낸 후 배를 타고 앞바다를 한바퀴 돌기도 한다.

d. 거리굿

· 제물준비

뱃고사를 마치고 해가 저서 어둑해지면 거리굿을 시작한다. 거리굿은 원래 산고개(새마당)에서 지냈다고 하나 거리가 너무 멀어 선착장에서 지내다가 바다가 막히면서 지금은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에서 비닐로 임시제당을 만들어 놓고 지낸다. 거리굿은 마을에 들어오는 액운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거리굿의 제물은 당산제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단 백설기 대신 팔시루를 새로 마련하여 올린다. 한편 당산에서 모셨던 당제가 선주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거리굿은 각 가정의 아낙네들의 정성으로 이어진다. 각 가정에서는 대주(大主)의 주발에 불밝이 쌀을 담아 만든 ‘꽃반’을 각자 나와 제상 옆에 차려 놓는다. 꽃반은 대개 하나를 준비하지만 특별히 정성을 드리고 싶은 집에서는 식구수대로 마련하기도 한다.

· 거리굿

거리굿 역시 경쟁이가 주관한다. 경쟁이가 경을 읽는 동안 아낙네들은 제장(祭場) 주위에서 치성을 드린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 당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고 복

(福)을 기원하는 의미로 돈을 바친다. 축원을 마친 경쟁이가 이어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거리소지→대동소지→당주소지→세대주소지 순으로 올린다. 세대주 소지를 올릴 때 꽃반을 준비한 가정에서는 앞으로 나와 자기 꽃반에 절을 하고 복 돈을 놓는다. 그러면 경쟁이는 쌀 점 신수를 봐 주면서 덕담을 해 주고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준다.

· 용왕제와 사살막이

거리굿을 끝낸 후 이어 경쟁이는 바닷가로 나가 비손을 하면서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사살막이’라 하여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활과 화살로 액막이를 한다. 이 사살막이를 ‘사살풀이’ 또는 ‘퇴식(退式)’이라고도 한다. 사살막이는 수수팔 범벅으로 만든 새알심을 동도지(東桃枝)로 만든 화살에 꽂아 동서남북으로 쏘아버리는 것으로, 마을의 잡귀잡신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용왕제를 마친 후 경쟁이는 혹시 잡귀(雜鬼)가 뒤따라올까 염려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돌아온다.

· 거리제

사살막이가 끝나면 약간의 음식을 차려 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삼거리로 나가 거리제를 지낸다.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음은 물론, 도로의 무사함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즉 마을 입구 삼거리에 짚을 깐 다음 제물을 차려놓고 그 옆에는 짚불을 피워 놓는다. 이어 경쟁이가 경문을 외어 해(害)를 물린 후에 제물을 사방에 흩뿌린다. 마을 입구 문인석이 있는 곳에도 제물을 떼어 한지에 싸 놓는다. 이는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것이다.

e. 음복(飮福) 및 결산(決算)

이렇게 하여 모든 제의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밤새 흥겹게 논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배치기 노래나 풍어제 봉축놀이(이밀량) 등을 하는데, 이러한 놀이는 당제가 치러지는 중간 중간에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다시 모여 제비 결산을 보고, 소머리 국을 끓여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3. 보령 고잠 마을 당제

1) 마을의 개관

고잠 마을은 청소면 신송리 서북쪽 끝에 위치한다. 청소면 소재지인 진죽리에서 2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재정리와 의 경계 지역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통해 들어간다. 이곳 주변은 시대 미상의 편마암 분포 지역으로 심층 풍화되면서 낮은 구릉을 이루고, 구릉 사이를 바다가 만입(灣入)한다. 따라서 마을의 북쪽·서쪽·남쪽은 모두 바다이며, 예부터 소규모의 간척 사업을 벌여 농토를 조성하였다. 간척지에서의 벼농사, 구릉지에서의 밭농

사, 염전, 주변 조간대에서 맨손 어업 등으로 생업을 영위하던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遂安 이씨 집성촌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안 이씨가 15C 중엽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제 시대 대규모 간척 사업의 결과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 현재는 여러 성씨가 거주한다.

이 마을의 산제가 수안 이씨의 입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수안 이씨가 주도적으로 산제를 지냈다고 전해지나 1969년부터 2002년까지 34년간의 당주 명부에 의하면 김씨가 23회, 이씨가 8회, 조씨 1회, 임씨 1회, 최씨 1회 당주를 맡았다.

마을로 통하는 작은 고개인 솔고개와 원안 마을로 통하는 성황당에 장승과 솟대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모두 없어졌다. 솟대는 수안 이씨가 과거에 합격한 뒤 세웠다고 전한다. 현재 50여 호가 거주하며 교회에 다니는 집은 1집이다.

2) 당제의 유래

마을에서는 수안 이씨가 고잠 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 지냈다고 전한다. 매년 새로 만드는 축문책의 표지에 당기(堂紀)를 표기한 것으로 보아(1999년의 경우 堂紀 五百五十一年) 1449년부터 지낸 것으로 보여지나 처음부터 축문책에 당기를 표기한 것이 아니고 후세에 선조들이 낙향한 해를 기점으로 당기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잠 마을이 수안 이씨의 집성촌이고 당제를 수안 이씨가 주도한 사실을 말해준다.

당집 안의 왼쪽 벽에 걸려 있는 유래기에도 수안 이씨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당제를 지냈다고 적어있다.

얼마 전에 3~4년 동안 당제를 지내지 않아 마을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다시 지냈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1970년대 암자를 정리할 때도 마을 주민의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보존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3) 제일

제일은 원래 정월 초이레였다. 정월 초이틀부터 걸립해서 지냈으나 췌날까지의 날이 너무 길어 부정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월 초사흘로 옮겼다. 정월 초사흘날로 잡고 보니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서 부정을 가릴 수가 없어 명절 세고 모두 돌아간 정월 초닷새로 다시 잡아 지낸다. 옛날 당제 기간 동안 초상이 나 췌날을 옮긴 적이 있다. 부정이 생기면 삼칠일 즉, 21일을 옮긴다.

4) 당집

당산이라고 부르는 마을 뒷산의 꼭대기에 블록벽에 기와를 얹은 2 칸의 당집이 있다. 옛

날에는 큰 소나무만 있었고 소나무 아래에서 지냈다고 한다. 소나무가 어찌나 컸던지 가지로 나무 절구통을 만들어 마을에 전한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초가지붕의 당집을 지었고 해방 후 중수하였으며, 30여 년 전에도 중수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91년 보령군의 지원으로 지었다.

옛날부터 당집 주변은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 상여가 열썬도 못했고 주민들도 나무를 꺾거나 자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신수로 위해지던 소나무가 베어지고 산이 다른 마을 사람의 소유로 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옛날 어떤 사람이 땀감으로 쓰기 위해서 당집 근처에서 삭정이³⁾를 잘랐는데 금세 코피가 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근래에도 당집 뒤에 교통사고로 죽은 총각의 묘가 있었는데, 묘를 쓴 뒤 그 집에도 별로 좋지 않아 최근 파묘하여 화장했다고 전하고, 옛날 어느 임신부가 당집 앞을 지나 뒷마루로 갔는데 결국 그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전설도 있다.

60대의 마을 노인이 기억하는 일로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어린 아이의 머리가 자주 커지는 병이 생겨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얻어 당산에서 세 명이 기도를 드렸다. 밤에 기도를 드리는데 당집 옆에 호랑이가 불을 켜고 꿈쩍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고 한다.

5) 제의 준비

선달 28~29일에 마을 원로들이 모여 당주와 부당주를 뽑고, 축관, 소지관을 정한다.

당주는 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목욕재계하고 부정의 방지에 힘쓰며 젓날 제에 쓸 음식을 준비하고 제 다음날 약간의 음식을 낸다.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부정을 막는 일인데 부부 생활도 금하고 외출도 절대 삼가며 누구를 만나지도, 마을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다. 당주는 당제를 지낸 후에도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어 1년 내내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부당주는 당주를 돕는 사람으로 당죽집에 마을 기를 세우고 황토를 놓으며, 당집을 청소하고 금줄을 매고, 제에 쓸 물건을 구입해 오기도 한다. 부당주도 당주와 같이 매일 목욕재계한다. 화장실만 갔다와도 목욕을 해야 한다고 한다.

축관은 축을 준비하여 읽는다. 축관도 매일 목욕재계한다.

소지관은 당제 때 소지를 올린다. 1999년의 경우 그 전날부터 목욕하고 속옷을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제의 비용은 걸립을 해서 충당한다. 옛날에는 정월 초이튿부터 풍물을 치고 마을을 돌면서 걸립을 했고 주민들은 첫 방아를 찧은 쌀을 따로 보관했다가 내놓았다고 전한다. 요즈음은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생겨 쌀 3되로 정하였

3) 산 나무에 달려있는 마른 나뭇가지

고 그것도 현금으로 내도록 하였다. 1999년의 경우 7,000원씩을 부담하였다. 1998년의 경우 7,000원씩 350,000원을 거두어 310,000원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 기금으로 하였다.

제물은 초3일 광천장에서 샀다.

먼저 선달 그믐날 당집에 가서 제기와 술, 물지게, 술항아리 등을 가져오고 제 전날은 당집 앞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폭10cm, 길이 50cm 정도의 창호지를 끼웠다. 새끼를 풀 때도 침을 뱉지 않고 마른으로⁴⁾ 끈다고 한다. 모두 부당주가 준비한다.

당주집에서는 제일 먼저 술을 한다. 당집에서 술을 하는 작은 항아리를 가져와 쌀 1되 3홉을 되어 술을 빚어 안방에 놓는다. 제물로 쓰는 쌀은 항상 홀수 되로 한다. 이때 술항아리 위에는 흰 천을 덮는다. 1999년의 경우는 정월 초하룻날 술을 빚었다. 젓날은 술을 걸러 주전자에 담는다.

다음에는 젓날 쌀 3되 3홉으로 떡가루를 뿜아 준비한다. 옛날에는 절구통에 뿜았으나 1999년의 경우는 당굿집에 절구통이 없어 할 수 없이 방앗간에 가서 뿜아 왔다. 장부로 보아 과거에는 두부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쌀도 1되 3홉을 씻어 술에 담아두고 탕은 소탕⁵⁾으로 준비한다. 다른 제물도 빠짐없이 챙겨 광주리나 함지에 담아 준비하여 안방에 둔다.

오후 5시쯤이 되면 제에 참여하는 부당주, 축관, 소지관이 당굿집으로 온다. 1999년의 경우 모두 평상복이었으며 소지관만 한복에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오는 도중에 누구도 앞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모두 도착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을 먹는다. 저녁상은 생선이나 고기가 일체 없이 김, 두부, 채소만 놓는다. 저녁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면 모두 준비한다.

먼저 양말을 벗고, 준비한 새 양말을 신으며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며 흰 고무신을 신는다. 마스크는 정숙하고 음식에 침이 떨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한다. 또 담배 한 갑씩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안방에 있는 제물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먼저 당주가 아무 것도 들지 않고 앞장을 서고, 소지관이 술주전자, 소지종이, 축을 들고 뒤따르며, 뒤에 두 사람이 지게를 지고 따라가고 맨 뒤에 물지게를 지고 간다. 물통은 양철통이고 지게는 3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지게이다. 올라가는 길은 당굿집에서 당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였다. 밭을 지나 산능선을 타고 올라갔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당주 일행이 지나가는 길과 교차되는 길 주변에 지켜서서 당주 일행을 가로지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1999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누가 나타나 길을 가로지르지 않을지 걱정하면서 당산으로 올랐다. 당산으로 오르면서 누구도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올랐다. 당집까지 약 15분 걸렸다.

당집에 도착하면 먼저 불을 놓는다. 옛날 나무가 없던 시절에는 장작 1짐, 잎나무⁶⁾ 1짐을 사서 놓았다고 하는데, 1999년 현재는 당집 주변에 죽은 나뭇가지가 많아 그것을 주워

4) 물기가 없는 상태로

5) 두부와 무 만으로 만든 탕

6) 장작이 아닌 풀잎으로 된 나무

다 놓았다. 당산 신(神)을 모신 방문과 부엌문을 열고 제 준비를 한다. 당산 신을 모신 방에 있는 큰 나무 상자를 밖으로 내놓고 제단에 백노지를 깔고 촛불을 켜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고기, 생선이 일체 없고 대추, 밤, 꽃감, 사과, 배, 떡, 노기(밥), 탕, 쌀, 과, 술, 포, 술, 숟가락, 젓가락이었다.

떡과 밥, 탕은 당집 부엌에서 만든다. 1999년에는 당굿집에서 길어온 물을 술에 붓고, 시루를 올리고 시루뎀을 붙이고,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아 떡을 찐다. 또 밥물을 적당히 부어 또 다른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올려 놓고 기다린다. 1999년의 경우는 부엌이 좁아 떡만 부엌에서 하고 밥은 당집 앞에서 하였다. 떡은 백무리⁷⁾인데 익히는 데 1시간 30분 가량이 걸렸다. 밥은 떡보다 빨리 되어 밥 냄비를 내리고 탕을 끓였다. 떡, 노구(밥), 탕은 만든 그대로 진설하였다.

포는 명태 2마리를 사용하였고 술은 2잔을 한 번만 올렸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1벌만 사용하였다. 쌀은 “불바지쌀”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당주, 축관, 소지관이 당산신을 모신 방에 들어가 제를 지낸다. 먼저 당주가 분향하고 술을 올리고, 당주가 엎드린 채로 축을 읽는다. 축문은 아래와 같다(1985년 축문).

維 歲次乙丑一月庚寅朔二日辛卯海東大韓民國忠清南道保寧郡靑所面新松里高岑洞祭主壬午生金東鶴 敢昭告于 堂山神 伏以天壤之間 萬物之中 惟人最貴 惟神最靈 以貴敬靈 以靈佑貴 天道之常經 古今之通 誼昔殷湯 禱於桑林 得千里之甘雨 漢之諸葛 祭山得風 神功鬼力 於斯可驗 今我洞人口不圓六畜不富故助我洞人口 謹以清酌庶羞歛 其惟神 尙 饗

이어서 당주·축관·소지관 모두가 재배한다. 다음에 당주는 엎드리고 소지관은 서고, 축관이 祈伏錄을 펼쳐 들고 소지 종이를 접어 소지관에게 준다. 소지 종이는 길게 들고 접힌 부분과 접히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2 : 1이 되게 접고, 3겹으로 길게 접는다. 소지관은 소지 종이를 촛불에 붙여 치켜들고 먼저 당산신을 위한 소지를 올리고, 마을 소지를 마을의 안녕과 축복, 풍년, 무사 등을 말하며 정중하게 올린다. 이어서 당주와 그 가족 하나 하나에 대한 소지를 올린다. 소지 당사자의 주소 생년육갑과 이름을 부르고 각 개인에 맞는 축원을 한다. 다음부터는 부당주와 그 가족의 소지를 올리고 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지를 올린다. 이때 자기 소지를 올리면 밖에 있던 사람이라도 들어와 두 번 절한다. 이어서 기록록에 있는 대로 소지를 올린다. 마을 주민은 대주(가장) 한사람만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방식은 모두 같다. 이때 당주는 소지 하나를 올릴 때마다 절을 두 번씩 한다. 따라서 당주는 100번 이상의 절을 하는 것이다.

어떤 주민은 특별히 쌀을 내고 소지를 올려달라고 한다.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가족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쓴 종이와 함께 초 한 자루, 쌀 5되 정도를 보내왔다. 이것은 소지를 올릴 때 제단 밑에 촛불을 켜고 놓고 올렸다.

7) 쌀가루로만 만든 백색의 떡

마지막으로는 마을 청년 중에 군대에 간 사람의 소지를 올려 주었다. 애초부터 기록록에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소지를 올리는 중에 잘 오르지 않으면 기록록에 표시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린다. 잘 타고 재가 잘게 부서져 흩어지고, 마지막 불꽃이 잘 올라가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귀배자’라고 하여 소지종이의 귀통이가 타지 않고 조금 남아서 떨어지면 나쁘고, 재가 흩어지지 못하고 하얗게 타면 ‘흰배자’라고 하여 나쁘고, 검게 말려가며 타면 ‘거먹배자’라고 하여 나쁘다고 믿는다. 흰배자가 제일 나쁘고 거먹배자, 귀배자순으로 나쁘다고 믿는다. 두 번째 올려서도 잘 올라가지 않으면 세 번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백지에 명태포 1마리, 떡, 밥, 사과, 대추, 밤, 꽃감, 배 등 제물의 일부를 담아 당집 동쪽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져다 놓는다. 이것을 ‘희식’이라고 한다. 온갖 날짐승들이 먹으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어서 향을 쫓았던 쌀과 탕 등을 사방에 뿌린다. 이렇게 하고 나면 10시쯤 되었다.

이어서 당주와 축관, 소지관과 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음복을 한다. 일부는 불을 켜고 일부는 음복을 하고 시간을 보낸 후 11시쯤 산을 내려온다. 남은 물로 불씨를 없애고 오던 길로 당굿집으로 돌아온다.

옛날에는 농악대도 함께 올라갔다고 한다. 올라갈 때는 농악을 치고 갔지만 내려올 때는 조용히 내려왔다고 한다. 제 지내는 시간을 알려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위하라는 의미였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집집마다 떡을 하여 당제를 지낸 직후 집안에 있는 성주, 조왕, 터주 등 가신(家神)에게 올렸다. 요즈음은 별로 하지 않는다.

당굿집에서는 산에서 가져온 약간의 떡, 과일과 국을 먹는다.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12시쯤 헤어지는 것이다.

다음날 마을 주민들이 당굿집에 인사하러 온다. 그러면 술과 약간의 음식을 내고 소지올릴 때 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을 알려준다. 일년 동안 조심하고 개인적으로 위하고 싶으면 위하라는 뜻이다.

제에 사용한 그릇은 깨끗이 닦아 제 다음날 당집에 둔다.

옛날에는 비용으로 당주에게 쌀 3말, 부당주에게 쌀 2말을 주었는데 요즈음은 쌀 5말씩 준다.

4. 보령 조잠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남포면 삼현리 조잠 마을은 대천해수욕장으로 통하는 36번 국도의 거먹개(흑포)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1km쯤 들어오는 마을이다.

과거 간척사업 이전에는 바다로 돌출한 반도의 끝에 위치한 포구〔造尺浦〕 마을이었다. 마을 앞은 넓은 바다였고, 대천해수욕장을 이루는 반도, 대섬(竹島), 밤섬(栗島)이 앞에 있

어 파도를 막아주는 천혜의 포구였다. 이때는 수십 척의 배가 정박하였으며, 먼 거리까지 출어하는 ‘중선배’도 여럿이었다. 이때는 전라도 경상도 배들도 정박하였다.

1968년쯤 조잠 마을과 밤섬 사이에 제방이 축조되어 포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남포방조제가 축조되어 마을은 바다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내륙이지만 아직도 10여 가구가 배를 소유하고 있고, 배는 대섬에 정박한다.

마을 주민은 약 50여 호로 특정한 성이 집성(集姓)을 이루지 않는다. 간척지 때문에 근래 이주한 주민이 많다.

2) 제의 준비

과거에는 음력설 안에 걸립을 하였다. 걸립은 풍물을 치며 마을을 돌아 쌀을 거두는 것이다. 풍물패를 앞세우고 가마니를 들고 다니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마당, 장독대 등 집안을 돌며 풍물을 친다. 그러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쌀을 몇 되씩 내어준다. 쌀은 첫 번째 방아쪼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내놓는다. 밥상에 쌀을 담은 그릇과 찬물을 함께 올려놓는데 이때 쌀그릇에는 촛불을 켜 놓는다.

현재는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걸립하지 않고 마을 대동(大洞) 돈을 쓴다.

제물은 선달 그믐날 대천장에서 샀다.

당주는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골랐다. 선달 그믐날 당주가 결정되면 당짓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했다. 금줄은 왼새끼줄에 백지와 솜을 매단 것이었고 황토를 두 줄로 놓았다. 금줄과 황토는 당짓집의 문마다 놓았다. 당주도 외부 출입을 않고 목욕재계하며 근신하였다. 제를 마쳐도 일 년 동안 근신하였다.

현재의 농협창고 앞에 대동샘이 있었는데 샘에도 포장을 덮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 당제를 지내기 전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도에는 대천 시장에서 제물을 사다가 마을 회관에 놓았다가 당집 앞으로 가져와 제 준비를 하였다.

3) 당제

마을의 남쪽 끝 바닷가 언덕 위에 당집이 있다. 당집은 목조 기와 한 칸으로 대들보 상량문에 ‘崇禎紀元後丙申捌月二十六日辰時立柱上樑壬坐原甲寅成造’라고 써어 있다⁸⁾. 당집이 있는 곳의 토지는 260평으로 마을 공동소유로 마을회관에 팔려있다. 원래 소유는 조잠 마을 것이나 현재의 행정구역이 삼현1리이기 때문에 삼현1리에서 관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당집에 당할머니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평상시에도 여자들의 생활용품인 바늘, 실, 꽃 등을 놓아둔다. 20여 년 전 해풍에 무너져 다시 지었다고 한다. 이때

8) 이것으로 보아 1656년에 건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보다 축소하여 지었기 때문에 남은 기와가 있어 당집 뒤에 놓았다고 한다. 대들보는 그대로 사용하여 옛 상량문이 남아있다. 당집이 무너졌을 때 섬사람들이 당할머니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당집 옆에는 수백 년 된 팽나무가 신수로 서있다. 간척사업 때 당집 주변의 흙을 파 사용하여 낮아졌으나 당집과 신수 주변은 그대로 남아있다. 당집 옆 바닷가에는 꼴뚜바위 또는 만리성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었는데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과거에는 정월 초이틀이나 초사흘에 택일해서 지냈으나 요즈음은 정월 보름날 11시쯤 지낸다. 언제나 물이 들어올 때 지내는데 11시쯤이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제를 지내는 시간이 되면 마을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 4~5명이 풍물패와 함께 물을 떠가지고 당집으로 오른다. 당집 안에는 당주만 들어가 제물을 진설하고, 일부는 밖에서 밥을 하고, 탕국을 끓이며 산적을 굽는다. 밖에서 하는 것인데도 밥도 잘되고 산적도 잘 익는다.

제물은 밤, 대추, 꽃감, 북어포, 소의 생간, 소의 처넵, 메, 탕국(무우와 고기넣고 끓인 것, 간을 하지 않음), 쇠고기 산적으로 절대 간장, 소금을 쓰지 않으며 양념도 하지 않는다. 떡은 올리지 않는다.

제상은 당집 출입문의 맞은 쪽 선반, 바다 쪽 선반, 바다 쪽 바닥, 당집 밖 등 4곳에 차른다. 2002년의 제상은 다음과 같다.

①출입문 맞은 쪽

색실, 바늘, 분병, 꽃, 미역, 초	초
----------------------	---

모두 여자가 사용하는 것들이다, 분 병에는 화장용 분이 들어있다. 이곳에 있는 제물은 당제가 끝나도 그대로 둔다. 이 선반의 밑에는 쌀그릇에 향을 꽂아 분향하였다.

②바다 쪽 선반

처넵·간, 소고기산적, 두부산적, 처넵·간, 처넵·간, 처넵·간, 처넵·간

처넵과 간은 한 접시에 함께 놓았는데 모두 다섯 접시를 놓았고, 소고기 산적과 두부 산적은 한 접시씩 놓았다. 산적은 모두 당집 앞에서 만들어 익힌 것이고 처넵과 간은 모두 익히지 않은 것이다.

③바다 쪽 바닥

탕·밥,	탕·밥,	탕·밥,	탕·밥,	탕·밥
밤·대추·꽃감,	밤·대추·꽃감,	밤·대추·꽃감,	밤·대추·꽃감,	밤·대추·꽃감
술·명태	술·명태	술·명태	술·명태	술·명태

메(밥)와 탕은 당집 앞에서 익힌 것이고 밤·대추·꽃감은 그릇에 담지 않고 함께 놓았다.

④당집 밖

탕, 밤·대추·꽃감, 치넵·간, 명태,	탕, 밤·대추·꽃감, 치넵·간, 소고기산적,두부산적,	탕 밤·대추·꽃감 치넵·간 명태
--------------------------------	--	----------------------------

이 제물은 배를 가진 사람을 위한 상이라고 한다. 삼현 1리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13명인데 이날 제 지내러 온 사람은 모두 3명이기 때문에 당집 밖에 상을 차려 놓았다. 옛날에는 이곳에 사용된 명태를 들고 달려가 뱃고사를 지냈으나 2002년에는 그냥 치우고 말았다.

이곳 외에 마을 쪽으로 좀 떨어진 대나무에 명태 1마리를 백지로 묶어 놓았다. 의미는 모르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

술은 바다 쪽 바닥에만 한 잔씩 따르고 당주가 두 번 절하고 축을 읽었으나 20여 년 전 해풍에 무너질 때 축문 등이 썩어있는 두꺼운 책을 잃어버려 요즈음은 축을 읽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축원을 외운다.

“당할머니 이 부락이 1년 열 두 달 아무 일없이 해주십시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할머니가 가르쳐 주십시오. 지성껏 모시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올라가면 말문이 터져 잘하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소지를 올린다. 먼저 마을 대동 소지, 당주 소지, 제에 참석한 사람, 다음에 가가 호호의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백지로 북어를 싸서 당집 안과 밖에 매달아 둔다.

이어서 제관이 술로 음복하고 당집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불 주위에 모여 탕에 간을 맞추어 음복을 더하고 제물을 회관으로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먹고 논다.

당집 안에는 사기로 된 술잔, 잔대, 밥그릇·국그릇 등이 있었는데 20여 년 전 무너질 때 모두 없어졌고 현재는 마을 회관의 그릇을 사용한다.

4) 뱃고사

당제가 끝나면 선주들에게 북어 1마리씩을 백지로 싸서 나누어준다. 준비했다가 나누어 주는데 서로가 먼저 가져가려고 경쟁한다. 북어를 받은 선주는 배로 뛰어가 뱃고사를 지낸다. 뱃고사는 개인적으로 지내는 것으로 떡 등 제물을 준비했다가 북어가 도착하면 제를 지내는 것이다.

제를 지낸 배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여러 색으로 된 천을 매단 대나무를 세운다. 이 대나무는 끝 부분의 작은 가지를 자르지 않고 그 밑에 천을 단다.

최근까지 배 부리는 사람에게는 북어 한 마리씩을 백지로 묶어 주었다고 하는데 2002년에는 주지 않았다.

5) 용왕제

당제가 끝나면 풍물패와 함께 당집 밑 바닷가로 온다. 바닷가에 당집에서 가져온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따르고 당주가 두 번 절한다. 다음에는 바가지에 물을 넣고 제물을 조금씩 잘라 넣어 맨손으로 저어 바다에 던지면서 “용왕님 우리 마을에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해주십시오”하고 빈다. 축을 읽지도 않았고 소지도 올리지 않았다. 용왕제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6) 거리제

이어서 마을 가운데 큰 돌 두 쪽으로 놓은 다리⁹⁾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제물은 용왕제에서 가져온 것으로 놓고 술을 따라 올린 후 당주가 절을 두 번 하고 물바가지에 제물의 일부를 떼어놓고 맨손으로 저어 사방에 뿌리면서 “일년 동안 우리 마을에 아무 일 없이 해주십시오.”하고 축원한다. 이때 막대기나 장갑 낀 손으로 저으면 안되고 반드시 맨손으로 저어야 한다.

거리제도 요즈음은 지내지 않는다.

7) 제의 결산

거리제가 끝나면 당굿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제를 결산하고 하루종일 풍물을 치며 논다. 현재는 당집에서 음복하고 남은 음식을 회관으로 가져와 먹고 결산한다. 풍물은 치지 않는다.

5. 보령 벌뜸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성주 5리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골짜기 마을이다. 해방 이후 석탄광산의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삼거리 지역이 도시화되어 성주면의 중심 마을이 되었으나 과거에는 성주 5리에 속한 벌뜸 마을이 성주면의 중심마을이었다. 또한 이 때에는 거주 인구가 적어 벌뜸, 탑동, 먹방, 심연동이 모두 한 마을이었다.

석탄 산업이 발달하였던 1960~1970년대에는 인구가 급증하여 마을이 분구(分區)되었고, 동제(洞祭)도 따로 지내게 되었다. 먹방, 성주 7리, 성주 8리 마을로 원래 성주 5리(벌뜸)와 함께 동제(洞祭)를 지내다가 분구되자 따로 지내게 되었다.

9) 현재 농협창고 앞

또한 마을 안에는 백제 시대에 세워지고 통일신라시대 무염국사에 의해 중창된 성주사가 있다.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이 지은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8호)와 4기의 석탑, 석등 등이 남아있으나 1970년대 말까지 농경지로 이용되었었다.

마을의 주민들은 대개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극히 일부만이 석탄광산 개발 이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2) 제의 준비

성주 5리 즉, 벌뜸·양지편·탑동 마을이 정월 초아흐렛날 산신제와 거리제를 함께 지낸다.

산신당은 성주사지 동남쪽 산제당골의 바위 밑에 있다. 슬레이트 지붕 1칸 집인데 기둥이 크고 잘 지어진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기와로 지었다가 슬레이트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제당의 북벽에는 수염 난 노인, 달, 기러기, 호랑이가 그려진 산신도가 유리 액자에 담겨 놓여져 있고, 산신도 밑에는 시멘트로 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제단의 앞에는 세 사람이 들어갈 정도 넓이의 공간이 있다. 대들보에는 龍 光緒六年庚辰十一月初一日酉時立柱上樑良坐坤向 虎라고 써여 있어 1880년에 건립되었음을 말해준다.

산신제는 정월 초이틀부터 시작한다.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뽑고 걸림을 시작한다. 걸림은 이장이 주관하는데 풍물패와 함께 마을의 유지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한다. 옛날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풍물을 쳐주었다. 이것을 ‘지덕누른다’라고 하여 그 해에 운수가 좋아진다고 믿었다. 요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집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자신해서 내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지나친다.

걸림액은 현금으로 70여 만원 정도이다. 한집에서 2000원에서부터 30000원 정도까지 부담한다. 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경우도 강요하지는 않는다. 과거 광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220가구나 되었고 돈이 돌아 많은 돈이 걸렸으나 현재는 100여 가구밖에 안 되고 걸림액수도 7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정월 초이틀부터 당주와 제관, 축관은 외부 출입을 삼간 채 매일 목욕재계하였다. 당주는 부정 때문에 시장보러도 가지 않았으나 요즘은 금기 사항이 약해진 경향이다. 그래도 당제 기간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쯤날을 연기하였다. 1999년의 경우 마을에 초상이 있어 정월 열사흘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당주는 늘 근신해야 했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옛날 어떤 제관이 목욕재계하고 제를 올리는데 날씨가 하도 추워 “이 씨부랄놈의 날 드럽게 춥네” 했더니 금새 입이 통통 부어 올랐다고 한다.

쯤날이 가까워지면 제관과 축관이 대천장에 가서 제물을 산다. 해마다 자리와 술을 새로 사는데 제에 사용하고 나면 당주한테 준다. 제 전날에는 마을 회관에서 돼지를 잡는다. 산신제에 쓸 돼지머리와 고기의 절반은 당굿집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제 다음날 회관에서 먹기 위해서 회관에 놓아둔다.

쯤날이 되면 마을 사람 세 사람을 뽑아 품삯을 주고(1998년 각 5만원, 1999년 각 3만원) 제 준비를 시킨다. 이들은 먼저 산제당에 가서 진입로와 제당 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주변의 낙엽을 모두 긁고, 불피울 나무를 준비하고 솥을 걸 수 있도록 돌로 아궁이를 만든다. 그리고 제당의 문 앞에 양쪽으로 3점씩 황토를 놓는다. 거리제 지낼 장소에 1짐 정도의 황토를 가져다 쌓아놓고 거리제 지내는 곳 주변에 통나무를 준비하며, 성주사지 대낭혜 화상탑비의 앞에도 황토를 놓는다.

젓날이 되면 당굿집에서 음식을 차린다. 산제에 쓰는 떡은 백무리로 3되 3홉을 하는데 당굿집에서 찌고, 노구메(밥)는 1되 3홉을 하는데 쌀만 씻어 산제당 앞에서 불을 때어 익힌다. 그리고 약간의 과일과 포, 김, 미역, 참기름을 준비한다.

3) 산신제

젓날 오후 5시쯤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당주, 제관, 축관 세 사람뿐이다. 과거에는 지계에 제물을 지고 갔으나 1999년의 경우는 손수레를 밀고 갔다. 옛날에는 풍물꾼들이 제당에 오를 때까지 풍물을 쳐주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1999년의 경우는 풍물을 치지 않았다.

산제당에 도착하면 한 사람은 제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하며 한 사람은 노구메(밥)를 한다. 제물은 제단에 백지를 깔고 접시 없이 진설한다. 산신도 앞에 술잔과 젓가락을 놓고, 술잔 앞에는 작은 그릇에 참기름을 넣고 심지를 세운 후 불을 켜다. 그리고 떡을 시루째 놓고, 밥은 솥째 놓는다. 그 옆에 돼지머리를 놓고 대추, 밤, 꽃감, 과 등 약간의 과일을 놓는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과 마른 미역을 놓는다. 그리고 맨 앞 단 아래에는 향을 피운다. 밥을 짓는 물을 당굿집에서 떠온다.

제의 순서는 먼저 당주가 분향 재배하고, 빈 잔에 술을 조금 부어 버리고(강신) 이어서 술을 한 잔 올린다. 그리고 당주와 제관은 엎드리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山神祭 祝文(壬申年)

維

歲次壬申正月朔初九日戊午辛未生崔秉元敢昭告于 山王大神之位 伏以肇 開子闢丑 維山維靈 帳
佐宜陰 應如顙響 茲以春正 敢暢微誠 潛心虔禱 庶幾感臨 瘟痘癘疫 攘之勿侵 鳥獸盜賊
一切呵噤 暢暢年登 五穀家家 日致千金 如是發願 感以來歆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 尙

饗

축이 끝나면 모두 절을 두 번 하고 이어서 술을 2잔 더 올리고 절을 하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백지를 접어 불에 태우는 것인데 먼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5리 주민들이 일 년 내내 평안하고 소원성취 해 달라고 빈다. 이어서 장부에 적힌 결립에 응한 사람들을 호명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주문을 외우면서 소지를 올린다. 많은 사람을 올리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소지가 끝나면 모두 두 번 절하는 것으로 산신제는 끝난다.

다. 이어서 축관이 밤, 대추, 곶감 몇 개를 들고 나와 산제당 주변에 던지며 ‘고시레’한다. 그리고 제에 참석한 사람이 간단한 음복을 하고 제물을 거두어 당굿집으로 향한다.

당굿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제 지낸 사람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거리제를 서두른다.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성주사지에 가서 간단하게 제를 올린다.

4)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탐비 제

산제당에서 내려오면 성주사지의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탐비에 제를 올린다. 아주 옛날부터 올려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올린다고 한다. 이곳에는 젓날 낮에 황토를 2곳씩 3줄로 놓아 잡인의 출입을 금했다. 이 제는 당주가 참석하지는 않고 아무한테나 의뢰하면 간단하게 올린다. 1999년의 경우는 제물이 소주 1병, 밤, 대추 몇 개, 명태포 1마리 등이었다. 주민 한 사람이 황토 사이에 백지를 펴고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올린 후 절을 두 번 한다. 그리고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는 소지를 올린다. 제를 마치면 제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내려온다. 이어서 거리제를 지낸다.

5) 거리제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작은 말뚝 다섯 개를 만들어 한쪽 면을 깎고 中央黃帝將軍, 東方靑帝將軍, 西方白帝將軍, 南方赤帝將軍, 北方黑帝將軍이라고 쓰고, 떡을 준비한다. 떡은 방앗간에서 맞추는데 많은 양을 해야 주민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네 말을 만들었다. 제물로는 대추, 밤, 곶감, 배와 3가지 나물을 준비한다.

거리제 지내는 장소인 벌뜸 마을 입구¹⁰⁾에는 낮에 황토 한 짐을 높이 쌓고, 주변에 네 무더기의 황토를 놓으며 불피울 통나무를 준비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풍물꾼이 나와 풍물을 치고 불을 놓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다. 1999년의 경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50여 명이 모였다.

당굿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많은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시를 함께 가져와 제물을 담는다. 제물의 진설은 다음과 같다.

황토무더기의 맨 위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팔떡을 한 시루 놓는다. 떡시루의 가운데에는 산신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작은 그릇(중재기)에 참기름을 담고 그 속에 다리가 세 개인 심지를 세우고 불을 켜 놓는다. 떡은 팔을 섞은 떡이다. 산신제는 백무리를 사용하지만 거리제는 팔을 섞은 떡이다. 이어서 동서남북 중앙에 준비한 말뚝을 꽂고 말뚝 앞에 탕 세 그릇, 대추, 밤, 곶감, 배, 명태포. 술잔이 각각 담긴 접시를 놓는다. 이때까지는 농악을 올리지만 제가 시작되면 농악을 끝낸다.

이어서 당주가 향을 피우고 술잔을 모두 올린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는 중앙, 동, 서, 남,

10) 벌뜸 마을에서 양지편으로 통하는 다리의 입구. 벌뜸 방향이다.

복순이다. 그리고 당주는 엮드리고 축관이 노제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路祭祝文(癸酉年)

維

歲次癸酉正月甲辰朔初九日壬子幼學金天峯 敢昭告于 土地之神 之位伏以 大道如髮 百靈所處 上有喬嶽 傍臨寒泉 祈福攘災 其應昭昭 我禱久矣 所願惟何 百般崇幘 一切呵噤 虎狼蛇蝎 鳥雀猪豚 凡諸害人 這這迸逐 伏惟尊靈 感我微誠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 尙

饗

독축이 끝나면 모두 두 번 절하고 소지를 올린다. 먼저 축관이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린다. 이어서 당주의 소지를 올리고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주변에 모였던 사람 모두가 달려들어 한 명씩 소지를 올린다. 마을 사람들 일부는 자기 소지를 올리는지 주목하기도 하며 나중에 소지를 올리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한다. 소지를 올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계속되면 지루해지고 어린이들은 과일이 먹고 싶어 슬금슬금 가져가기도 하고, 어른들이 집어주기도 한다. 멀리 있는 제물부터 없어지고 당주 앞에 있는 제물이 가장 늦게 없어진다. 소지를 마치기 전에 과일과 포는 거의 없어졌다. 소지가 끝나면 당주와 제관 축관은 두 번씩 절하고 밤, 대추 등 남은 과일 몇 개를 주변에 던져 고시례를 한다. 이어서 떡을 나누어주라고 하면 마을의 여자들이 달려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준다. 서로가 가져가려고 해 순식간에 2말의 떡이 없어졌다. 나머지 2말의 떡은 당굿집으로 옮겨 그날 저녁 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다음날 회관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옛날에는 떡이 귀해서 1가마 정도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거리제를 마치면 풍물패는 풍물을 치며 앞장서고, 당주, 축관, 제관과 이장 등 제를 주도한 사람들은 당굿집으로 향한다. 당굿집 앞 도로변에는 큰 상 몇 개를 펴놓고 술과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 1999년의 경우는 날씨가 춥고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거실로 안내되었다.

6) 제의 결산

제 다음 날은 마을회관에서 돼지고기, 술, 떡 등 음식을 먹고 마을 총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동제의 경비를 결산하고 당주와 제관의 수고비도 준다. 1998년 당주에게는 100,000원, 제관 축관에게는 50,000원을 주었다고 한다.

6. 보령 지게굴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지계굴 마을은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석탄산업박물관 남동쪽에 있다. 마을 앞에는 성주천이 흐르고 마을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마을이다.

1960년대 석탄 광산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30여 호가 농업을 하며 거주하였는데, 석탄 광산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27가구가 거주한다.

과거에는 밀양 박씨 집성촌으로 30여 호 중 절반 가까이가 밀양 박씨였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127가구 대부분은 근래에 이주해 온 사람으로 여러 성씨가 섞여 있다. 또한 마을 안에는 교회가 있으며 교회에 다니는 가구는 약 30 가구이다.

2) 동제(洞祭)

(1)

이 마을은 정월 보름날 낮에 동제를 올린다. 초사흔날 걸립을 하고 당주와 축관을 뽑는다. 옛날에는 걸립을 하면 상에 말을 올려놓고 쌀을 가득 담고 위에 촛불을 밝혀 놓았다가 내놓았다. 걸립꾼은 마당, 부엌, 장독대 등을 돌아다니며 풍물을 쳐 1년 동안의 안녕을 빈다. 이것을 ‘지덕누른다’라고 한다. 요즈음은 풍물패가 마을을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돈으로 낸다. 걸립 액수는 약 100만원 정도 된다. 마을에 교회가 있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대개 걸립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사람은 ‘소지만 올리지 마라’고 부탁하고 걸립에 참여한다.

초사흔날 당주를 뽑으면 당주는 그날부터 목욕제계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당주네가 먹는 샘을 품고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금줄을 띠고 황토를 놓고 덮어놓았다. 그리고 당주는 매일 찬물로 목욕하였다. 제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갈 때는 대미보통¹¹⁾에서 목욕하고, 물건을 사올 때도 대미보통에서 목욕하였다. 요즘에는 샘에 금줄을 띠거나, 황토도 놓지 않고 목욕도 집에서 한다. 지금도 제관 축관은 매일 목욕한다. 초이레가 되면 술을 하는데 대략 5말 정도를 하였다. 옛날에는 술밥을 찐 때, 술을 비벼넣을 때, 모두 샘을 품고 정성을 들이고 술독도 안방에 안치하였다. 일반인의 술 제조를 엄격히 금한 일제 시대에도 당굿집에서 하는 술은 금하지 못했다고 한다. 요즈음은 술은 하지 않는다. 또한 당주를 뽑기는 하지만 음식 준비는 마을 회관에서 한다. 대신 60세가 넘어 생리를 하지 않은 부인들 2명을 골라 품삷을 주고 음식 장만을 시킨다. 젊은 여자는 생리를 하여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에 필요한 물건은 제 며칠 전에 대천장에서 사온다. 걸립을 주관한 마을 이장 등 몇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당굿집에는 대문 앞에 마을 대동기를 꽂았다. 마을 대동기는 ‘農者天下之大本’기인데 기를 다는 대나무는 밑 직경이 15cm정도, 높이가 10여m 된다. 깃대의 끝에는 꿩털로 만든

11) 마을 앞에 있는 보(淵)

평장목을 쫓고 다음에 태극기, 그 다음에 마을 대동기를 쫓는다. 대동기는 모두 백색이다. 그리고 당췌집 앞에는 ‘禁’자가 새겨진 흰색의 작은 깃발을 세우고, 금줄을 띠고, 황토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1998년까지는 당췌집에 쫓았다고 하는데 1999년부터는 마을 회관에 대동기와 ‘禁’字기를 쫓는다. 대동기 등 기물의 보관도 과거에는 당췌집에서 하였으나 현재는 마을 회관에서 한다.

췌날 아침 10시췌 되면 마을의 노인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이고, 풍물패도 마을 회관으로 모인다. 풍물은 젊은이들이 쳐야 하는데, 잘 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 모두 노인들이 담당한다. 제에 사용될 음식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에서 지명된 아주머니 두 분이 준비한다. 3곳에 제를 지내기 때문에 음식을 3그릇에 담아 준비한다.

(2)

맨 처음 마을의 남췌, 옛날에 소나무가 있던 장승백이로 떠난다. 이곳에는 어른 세 아름췌의 소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나무로 된 장승이 서 있었다. 소나무는 말라죽었고 장승도 35년 췌부터 세우지 않아 없어졌으며 나무와 장승이 있던 자리는 현재 작은 논으로 변해 있다. 이곳은 마을에서 남췌으로 통하는 도로변으로 1998년 시멘트로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제를 지내는 장소는 더 넓게 돌출시켜 포장하였다.

옛날 장승은 정월 초에 소나무를 베어 나이가 가장 많은 총각을 시켜 깎았다. 장승을 깎으면 장가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장승의 얼굴을 만들려면 소나무 밑둥이 적당했기 때문에 밑둥이 장승의 얼굴로 되었다. 장승을 세우면 소나무를 거꾸로 세운 셈이다. 장승에는 ‘東南間逐鬼大將軍’이라고 썼다고 전한다. 미리 깎아 두었다가 정월 보름날 세우고 제를 올렸다고 한다. 장승 옆에는 길이 3m췌 되는, 곧고 길게 자란 소나무를 가지를 자르지 않은 채 베어다 쫓았다고 한다.

1999년의 경우는 제물을 든 사람 3명이 먼저 떠나고, 풍물패를 앞세우고 제관과 축관이 따라가서 소나무가 서 있던 장소에 자리를 깔고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하였다. 제물은 맨 위췌에 잔대와 잔 5개를 놓고, 다음 열에 두부와 쇠고기를 섞어 만든 탕 5그릇, 그 앞에는 두부 전 5접시, 명태포 1마리, 대췌, 밤, 껏감 각 한 접시를 놓는다. 제물이 진설되면 제관(당췌)과 축관이 옆드리고 풍물은 그친다. 그리고 먼저 잔에 조금씩 술을 부어 가시어 버린다. 그리고 재배(再拜)하고 다음에는 잔에 가득 술을 부어 올리고 끓어얹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

세차기묘정월기해삭십오일기축

충청남도 보령시 성췌면 개화리 조계동

동부동남 도로지신왕 상하거인 감소고우

동부동남 상선촌리 일년사시 해원출근

유로탕원 불통원야 남녀로소 계존차로

조왕모귀 원유신명 목우찬호 산마수요

함유사로 영래송거 이섭안행 문주불범
도사비유 풍도잠여 천음우습 유공객지
전도물침 전편구매 가금불상 위택아혼
당도직사 축귀장군 천호만사 근이주과
피로자생 발고시회 운수무산 진사기사
상
향

축문은 원래 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읽기 어려워 한글로 써 읽다가 한자로 쓴 것을 잃어버려 한글로 된 것만 남아 있다.

축 읽는 것이 끝나면 두 번 절한다. 다음은 풍물꾼 중 징잡이가 징을 높이 쳐들고 힘차게 세 번 친다. 이어서 제관이 퇴주 그릇에 명태포의 대가리, 밤, 대추, 곶감 몇 개를 담고 술을 몇 잔 부어 남쪽을 향해 뿌리면서 “객귀는 물러가라”고 소리친다. 다음에 제관과 주변에 있던 풍물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음복을 한다.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이어서 다음 제 지내는 곳으로 향한다.

(3)

마을 남쪽 소나무와 장승이 있던 곳에서 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면서 마을 가운데에 있는 참나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 참나무는 크기가 두 아름 되는 것으로 옛날에는 장승, 소나무 한 그루와 팽나무 한 그루도 함께 있었으나 소나무와 참나무는 도로를 넓히느라 뿌리를 끊어 죽어 없어졌다.

참나무는 가지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마을에 처음으로 이주한 밀양 박씨가 작대기로 알맞아 베어 쓰러다가 남겨 놓은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장승은 마을 남쪽의 정자나무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초(정월 12-13일)에 소나무를 베어 나이 많은 총각이 깎아 놓았다가 정월 보름날 제 지내기 전에 세웠다. 이곳의 장승은 ‘西北間逐鬼大將軍’이라 써어 있었다고 전한다.¹²⁾ 장승은 2개였고 장승 옆에는 밋밋하게 자란 1길 반쯤 되는 소나무를 가지를 자르지 않은 채 세워 놓았다고 전한다.

이곳에도 마을 남쪽 소나무 있던 자리에서의 거리제와 똑같은 제물을 차리고 똑같이 제를 올린다. 축문도 똑 같은데 다만 東部東南 대신 東部西北이라고만 바꾸어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두 번 절하고 징잡이가 징을 크게 세 번 친다. 이때 마을의 노인이 돈 10000원을 과일 접시 밑에 넣고 절을 하여 기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전에는 제를 마친 후 명태 대가리와 대추, 밤, 곶감 몇 개를 백지에 싸 참나무 가지 위에 올려놓았었다고 하는데 1999년에는 마을 남쪽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주그릇에 술과 섞어 서북쪽을 향해 뿌렸다. 제를 마치면 풍물패는 흥겹게 풍물을 친 후 산제당으로 향한다.

12) 37년전에 장승을 만든 한길희(67)씨 증언, 당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총각이었었다고 한다.(1999년 조사)

(4)

산제당에 도착하면 풍물꾼이 한바탕 풍물을 치고 이어서 제관과 축관이 제를 준비한다. 산제당은 제 전날 모두 청소를 해 놓는다.

산제당은 슬레이트 1칸의 집으로 1965년경 새로 지었다. 과거에는 마을 가운데 제를 지내는 참나무 옆(도로 북쪽으로 20여m에 돌로 쌓은 노신제당(路神祭堂)이 있었다. 이 노신제당(路神祭堂)은 2×2.5m쯤 되는 것으로 3방향을 돌로 쌓고(한 길 정도), 안에 제단을 무릎 높이로 만들었다. 제단의 방향은 마을 북동쪽에 있는 뽕죽한 산 정상이었다. 이 제당 주변은 하천 주변으로 ‘묵밭’으로 불리는 황무지였으나 광산 개발로 주택이 들어서 지저분하여 1965년 경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의 산제당 위치는 마을 동쪽 골짜기 입구의 양지바른 곳이다.

산제당의 동쪽(문의 맞은 쪽)에는 산신도가 그려져 있다. 10여 년 전에 그렸다고 한다. 시멘트 벽에 천을 붙이고, 천에 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렸다. 산신은 호랑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이다. 주변에는 학, 소나무 등 십장생과 동자(童子) 등이 그려져 있다. 산신도의 밑에는 시멘트로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앞에는 제 지내는 공간이다.

제단에 백지를 깔고 제물을 차린다. 제물은 마을 안의 정자나무 있던 곳에서 지내던 것과 비슷한데 단지 돼지머리, 떡, 밥, 다시마, 김 등의 제물이 추가되었다. 떡은 3되 3홉을 하는데 백무리¹³⁾로 찢는다. 시루 안에 작은 그릇에 쌀을 담고 그 속에 등잔을 넣어 불을 켜다. 등잔은 종지에 참기름을 넣고, 심지를 세워 만든다. 밥은 1되 3홉을 한다. 떡, 밥 모두 옛날에는 당굿집에서 만들어 왔고, 현재는 마을 회관에서 만들어 온다.

이곳에서도 술잔 5개, 탕 5그릇, 두부전 5그릇이 사용되었다.

제는 제관과 축관이 참여하고 풍물꾼 등 주민은 산제당 밑에서 기다린다. 제의 순서는 먼저 분향하고 재배하며, 술잔에 술을 조금씩 부어 가시어 버리고 재배한다. 이어서 잔에 가득 술을 따르고 제관은 엎드리고 축관은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

세차병자정월경인삭십오일경자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조계동

상하거인 감소고우

오방토지지신왕 천하유 천하지오방 일국유 일국지오방

일읍지오방 일촌유 일촌지오방

유자동부 원유오방 동서남북 중앙지지신 차제강림 음차명리

북이동방청용 청제지지신

주춘삼삭 인갑묘을 손목왕생 물지기이 사차촌인 춘삼삭

태평안락언 남방수작적제지지신

주하삼삭 사병오정 곤파왕장 물지기이 사차촌인 하삼삭

13) 쌀가루로만 만든 흰색의 떡

왕하강영언 서방백호 백제지지신
 주추삼삭 신경유신 건금왕생 물지기가 사차촌인 추삼삭
 풍양일예(성숙)언 북방현무 흑제지지신
 주동삼삭 해임자계 감수왕장 물지기가 사차촌인 동삼삭
 실처포난 중앙후토 황제지지신
 주사계 진술축미 곤간토왕 물지기가 곽통사서 위육만물
 사차촌인 일년십이월 안락강영언
 인인장수 가가부요 무자자유자 무손자유손 병자협차
 수화도적 지액관재 구설지액
 동토장목 지액년액 월액일액 시액소멸 소제 신수농수재수대통이
 당상성황
 서왕지기 퇴청대풍 물침물범 산마수요 천음비괴 우습음사 횡사유혼
 동여염기 풍도전편 속참질구 보우일촌 기애가명 신뢰오방지지신
 지유사 근이청작 서수진 기 상
 향

이 축문도 원래 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한자를 읽기 어려워 한글로 써 읽다가 한자로 쓴 것을 잃어버려 한글로 된 것만 남아있다.

독축이 끝나면 재배를 하고 대추, 밤, 꽃감, 명태대가리, 떡 조각을 백지에 싸서 산제당 옆 산에다 던진다.

이어서 산제당 안에서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제관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축원하는 말과 함께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마을 가가호호의 개인 소지를 올린다. 개인 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 한 사람이 명단을 불러주고 마을 주민들 몇 명이 더 들어와 소지를 올린다.

제를 지내기 위해 이동 중에는 언제나 풍물을 올리고 제 장소에 도착해서도 흥겹게 풍물을 올린다. 제 도중에는 풍물을 그치고 제가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소지를 올린 후에는 음복을 하고 마을 회관으로 내려와 점심을 먹는다. 제는 10시쯤에 시작해서 12시 30분쯤 끝나는 셈이다.

(5)

점심은 회관에서 준비하는데 마을에서 선출된 아주머니들이 준비한다. 1999년의 경우는 쇠머리를 사다 삶아 국밥을 준비하였다.

제 다음날 즉 정월 열 엿셋날은 마을 회관에서 마을 총회를 하여 제 비용을 결산한다. 이때 남은 비용은 마을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

7. 서천 마량리 당제¹⁴⁾

1) 마을의 개관

마량리는 서천군 서면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어촌이다. 인근의 춘장대해수욕장과 이곳 동백정은 명소로 꼽힌다. 어촌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관광업이 활성화되어 어업과 더불어 요식업과 숙박업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2) 제의 내용

마량리의 당제는 다양한 제의로 이루어져 있다. 전 주민이 합심하여 음력 선달 선창제를 시작으로, 초사흘날 당제(부정풀이, 편탕제), 당굿, 마당제, 대내림, 용왕제, 샘제 등을 행하고, 초여드렛날이나 아흐렛날 중 좋은 날을 가려서 거리제(장승위하기)를 모신다. 거리제를 제외하고 여섯 종류의 제의를 총칭하여 ‘당제’ 혹은 ‘윗당제’라고 부른다. 당제와는 다소 시간상의 간극을 두고 행해지는 거리제는 당제와 별개로 베풀어지는 제의로 인식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의 명칭	제의 날짜	제의 장소
선창제	음력 선달 그믐날 밤9시	선창 아래의 갯벌
당대올리기	음력 정월 초하룻날 오후 1시	당집으로 올라가기
편탕제	음력 정월 초사흘날 오전3-5시	당집
당 굿	음력 정월 초사흘날 오전9시	당집
마당제	음력 정월 초사흘날 오후4시	당집 앞 동백정 마당
대내림	음력 정월 초사흘날 오후5시	동백정 마당
용왕제	음력 정월 초사흘날 오후6시	동백정 옆 큰안이 바닷가
샘 제	음력 정월 초사흘날 오후 6시 이후	마을 중앙의 샘
당맞이 고사	음력 정월 초사흘날 오후6시 이후	각자의 배
거리제	음력 정월 초여드레날 이나 초아흐레날 오후 5시	해안도로 가의 장승 앞

(1) (祭堂) (神靈)

① 제당

동백정 정자 앞 30m 떨어진 곳에 화력발전소를 바라보며 당집이 위치해 있다. 화력발전소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마을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공간이었다. 현재의 제당은 2001년도에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 5,000여 만원을 들여 건립하였다. 새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이를 기념하여 주민들은 자금을 출자하여 제당에 모실 서낭님과 스님 등을 새로 제작

14) 김효경, 2001, 충남 서천의 마량리 당제, 考古와 民俗 제4집, 한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줄여 옮김.

하여 봉안하였다. 2001년도는 마랑리 제당과 신령이 새롭게 태어난 해이다.

현재의 제당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이나 안은 하나로 뚫려 있는 통칸 집이며, 검은 기와를 얹었다.

당집이 있는 공간은 신성한 공간이므로 부정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공원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기에 그들에게 호기심도 제공하고 있다.

② 당신(堂神)[각시 서낭님 내외, 서낭님 아들 내외, 스님(불사)]

당집에는 서낭님 내외분과 서낭님 아들 내외, 스님이 모셔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래담이 제당 앞 안내판에 적혀져 있다.

“500여 년 전 이 마을 사람들은 뗏목을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는데, 바다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한 노파가 바다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용왕을 잘 위해야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였다. 백발노인의 현몽으로 해안 백사장에서 널에 들어있는 서낭 다섯 분과 동백나무 씨앗을 얻어 서낭은 신당에 모시고, 동백 씨앗은 주변에 심었는데, 동백나무 숲 85주가 무성하며, 정월 초사흘날 당에 올라가 초사흘날까지 제사를 모시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다섯 분의 신령 중 주민들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신령은 스님이다. 스님의 성격과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으나 제의에 있어 가장 중심에 놓여있다. 제의를 거행할 때 술도 제일 먼저 올리고, 절도 제일 먼저 한다. 올해 당굿을 맡은 법사는 스님을 ‘천황대신’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만신(萬神)을 다스리는 천황대신이 이곳에 모셔져 있으니 최고의 신령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스님 혹은 불사라고 불리는 이 신령은 흰 장삼을 입히고, 머리에는 고깔을 씌워 놓았다.

그 다음으로 중시되는 신령은 스님 옆의 당집 정면에 모셔진 각시 서낭님 내외이다. 스님과 더불어 초기부터 모셔진 신령으로, 주민들은 이 서낭님이 인근의 제당 중에서도 웃어른이라고 한다. 실제 이 마을의 당제를 ‘웃당제’라 표현하고, 서낭님도 역시 ‘윗당 서낭님’이라 표현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웃당은 아랫당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라, 단순하게 존칭의 뜻만을 담은 수식어이다. 각시 서낭님 옆에는 그의 며느리와 아들이 순서대로 모셔져 있다. 각시서낭 내외와 아들 내외는 동일한 모습인데, 여서낭의 경우 붉은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입혔다. 시집간 여자를 상징화한 모습이라 한다. 남서낭의 경우 분홍 바지저고리를 입히고, 옥색 조끼를 덧입혔다.

서낭님은 바다의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셔야 한다고 믿는다. 당집에 서낭님을 위하듯, 조업 도중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마음속에서는 벌써 ‘서낭님 살려주쇼’라고 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배안에 서낭님을 모시는 것이며, 서낭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서낭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조상보다 더(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서낭님을 모신다.

스님 옆에는 좌상의 금동불상 한 기가 모셔져 있다. 본래는 이 마을에 거주하던 만신이 모시던 불상인데, 그가 무업을 그만두면서 당집으로 옮겨 모셨다. 특별히 금동좌상에 제물

을 바치거나 치성을 드리지는 않지만 위하던 것이니 제당 안에 옮겨 모신 것뿐이다.

이외에 제당 안의 왼쪽 하단에는 판목에 부조로 말과 마부가 조각되어 있다. 흰색 바탕에 갈색 옷을 입고 갈색 말을 끌고 가는 마부는 바로 서낭님을 모시고 다니는 시종이다. 서낭님이 타고 다니는 어마(御馬)로 다른 신령과 달리 선반 위에 모시지 않고 바닥 가까운 곳에 모신다. 신격이 낮음을 표현한 것이다.

③ 장승

당집 안에 모셔진 이들 신령 이외에 거리제의 대상이 되는 장승도 있다.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면 그 중턱 고갯마루에 남장승과 여장승이 위치해 있다.

장승도 동백정의 서낭님과 마찬가지로 그 연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40여 년 전에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그 전통을 잇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주민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과거의 전통을 부활하기로 하였다.

(2)

① 화주·화장 선출 및 금기

제일이 정월 초사흘날로 정해져 있으므로, 한달 전에 미리 마을 총회를 통해서 화주와 화장을 각기 한 명씩 선정한다. 생기복덕을 보아 생기나 복덕이 닿는 사람 등 깨끗한 사람으로 화주를 선정한다. 화장은 생기복덕이 닿지는 않아도 그 해에 운이 좋고 깨끗한 사람으로 정한다. 화주는 제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이며, 화장은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화장이 직접 산에 올라 떡을 만들어 올렸으나 지금은 부녀회가 주관하여 제물을 마련하므로 화장의 역할은 요구되지 않는다.

② 단골과 법사(法師)

당제의 중요 재차(祭次) 중의 하나가 바로 당굿이다. 편탕제를 마친 후 이어 베풀어지는 제의로, 과거에는 인근의 단골 무녀를 불러 굿을 했다. 이 무녀를 ‘젓늬단골’이라고 불렀는데,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단골은 마량리 뿐만 아니라 도둔리 등지를 돌면서 굿을 주관하였고, 해마다 한번씩 곡식을 걷으러 다녔다.

③ 제비·제물·제기

제비는 제의를 앞두고 약 20일 이전에 걸립을 하여 마련한다. 마을 주민들이 일정액씩을 추렴하여 마련하는데, 2001년도의 경우 선주는 일만원을 내고, 배사업을 하지 않는 주민은 오천원씩을 내었다. 과거에는 선주나 일반인이나 쌀로 일정량을 내고, 선주는 돈을 추가로 더 내었다. 부족할 경우에는 풍장패를 조직하여 걸립을 한다.

(3)

① 선창제

선달 그믐날 저녁이 되면 화주와 화장이 주관이 되어 선창제를 지낸다. 바다와 마을의 경계인 선창에서 지내는 이 제의는 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마량리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제의이다.

② 당제

a. 화주집에서 성주 위하기

이 절차는 초사흘날 당집에 오르면서 새롭게 추가된 절차이다. 당집에 오르기 이전에 화주집에서 일박을 한 법사와 무당은 집을 나서기에 앞서 화주를 위해 굿 한 석을 한다. 집안의 성주에게 그 집안의 대주가 화주가 되어 당제를 모시러 올라감을 고하는 것이다.

b. ‘당대’(‘당기’라고도 부름) 올리기

초하룻날 각 가정에서 차례를 모신 후 점심 즈음이 되면 화주와 화장이 제물을 지고 당기를 앞세우고 동백정의 당집으로 향했다. 이를 당기 즉 당대를 가지고 오른다고 하여 ‘당대올리기’ 혹은 ‘당기 올리기’라고 표현한다.

당기는 10자 이상되는 긴 통 대나무에 가로 40cm, 세로 3m정도 되는 흰천을 세로로 내리지를 것이다. 흰천에는 ‘동백정성황당(冬栢亭城隍堂)’이라 묵서해 두었다. 중앙의 글씨 옆에 신미년이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이 당기는 1931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집에 도착하면 먼저 당기를 당집 앞 동백나무 사이에 세운다. 대내림 이후 용왕제, 샘제를 모실 때까지 이 기는 다른 기에 앞서 나가며 어른 대접을 받는다.

c. 제의 준비

제당에 오른 화주와 화장은 당집을 청소하고 당제 기간동안 사용할 물을 길어온다. 과거에는 당일 정성이라 하여 당일 아침에 제당 앞에 금줄을 드리웠었다고 하나 간소화되면서 금줄은 드리우지 않는다.

d. 청수올리기

당집에 오른 화주와 화장은 당집에서 기거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서낭님께 청수를 갈아드렸다.

e. 제물마련

물이 마련되면 화장은 제물을 마련했다. 제물 중 가장 일손이 가는 것은 편탕이다. 편탕은 설날의 시절음식인 떡국으로 ‘생떡국’이라 부른다.

제를 하루 앞두고는 제주를 봉안한다. 제당에서 사용할 정도로 넉넉하게 담아 제당 안에 넣어둔다.

f. 부정풀이

초사흘날 당집에 오르게 되면서 ‘부정풀이’가 추가되었다. 과거에는 화주와 화장이 미리 이틀 전부터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당집에서 정성을 드렸으나, 지금은 무당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오르다보니 혹여 부정을 탈까하여 부정풀이를 추가한 것이다.

g. 편탕제

당제의 첫 번째가 편탕제이다. 과거에는 새벽 3시경에 편탕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오전 9시 경에 지내고 있다. 제의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당집 안의 신령들에게 먼저 편탕을 올리고, 나머지 제물도 올린다. 편탕을 끓일 때는 소고기를 넣고 끓이지만 제당에 올릴 때는 단 한 점의 고기도 고기도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에 화주와 화장이 들어가서 술을 한 잔씩 올리고 절을 한다. 술과 절은 오른쪽 스님부터 올리고 이어 그 옆의 각시 서낭님 내외에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서낭님 아들 내외에게 올린다. 마부에게는 술만을 올릴 뿐 절은 하지 않는다.

h. 배기(船旗)오르기

편탕제가 끝날 즈음이 되면 선주들은 서둘러 배기를 앞세우고 산에 오른다. 서로 먼저 올라가서 편탕을 얻어먹겠다며 서둘렀는데, 이 떡국을 먹으면 벌이가 좋다고 하여 3시경이 되면 서로 경쟁하듯이 올랐다. 배기를 당기가 세워진 앞쪽의 동백나무에 기대어 세우면, 편탕제를 마친 화주가 여분의 떡국을 일찍 올라온 순서대로 한 그릇씩 대접한다.

i. 당굿

당굿은 서낭님이 모셔진 당집에서 베푸는 열 석의 굿을 말한다. 당집에서 무당이 베푼다고 하여 당굿이라 부르는 것이다. 당굿은 열 석을 하는데, 용왕제 시간을 맞추어야 하므로 시간을 조절해 가며 열 석을 맞춘다. 당굿 열 석 이외에 마당제 한 석, 대내림 한 석으로 계산하여 굿은 모두 열두 석을 행한다고 생각한다.

j. 소지 받기

단골이 올라와서 굿을 한 석하고, 이어 소지 세 장을 올린다. 그런 후 화주에게 소지를 건넨다. 소지를 올리는 것을 ‘소지 받는다’라고 표현한다.

k. 마당제

동백정 정자 앞 넓은 마당에서 마당제를 지낸다. 돛자리를 깔고 상을 올린 후 그 앞에 법사가 바다를 향해 앉는다. 마당제를 지낼 때도 역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축원을 한다. 마당제는 뒤이어 행해지는 대내림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l. 대내림

마당제 굿이 끝나면 제의의 절정에 해당하는 대내림이 진행된다. 대내림을 위해서는 당집 앞에 모셔둔 당기를 뽑아다가 동백정 정자로 옮겨 모셔야 한다. 기를 정자에 기대어 세운 후, 기의 허리부분에 당집에서 길지를 한 장 꺼내다가 묶는다. 세워진 대의 끝부분이라도 넘어 다니면 안된다. 대 아래에 상을 가져다 두고 그 위에 흰종이 한 장을 깔 후 쌀 한 말 정도를 상 위에 쏟는다. 쌀의 가운데에 초를 하나 꽂고 불을 밝히고, 그 옆에 청수 한 그릇을 올린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법사가 동백정 정자 옆에서 건너편 바다쪽을 바라보고 앉아 축원을 한다. 잠깐 축원을 한 후 대내림을 행한다. 이 대내림은 대를 쥐고 있으면 그 대로 서낭신이 하강하여 서낭의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정성을 잘 받으셨는지의 여부와 마을의 안녕 등과 관련한 모든 관심은 대내림에 쏠려 있다.

전년도에 당기를 잡았던 젊은 사람을 불러 대를 잡게 한다. 대가 일단 내리면 심하게 흔들리므로 노인 보다는 젊은이를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은 기력이 쇠하므로 대가 내리면 훗날 고생하는 일이 많으므로 피한다. 대가 내리면 발끝부터 신령이 오른다. 발이 움직이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이다. 손만 흔드는 것은 진정한 대내림이 아니라고 한다.

m. 용왕제

용왕제는 동백정 바로 옆 ‘큰안이’라 불리는 바닷가에서 베풀어진다. 바닷물이 해안에 가장 가깝게 인접했을 때 용왕제를 지낸다.

n. 샘제

용왕제를 마친 후 다시 당기를 앞세우고 샘으로 향한다. 이때 무당은 참석하지 않는다.

샘제를 지내는 샘은 마을 중앙에 있는 샘으로 2001년 화주집 뒷편에 있었다. 이 샘은 주민의 90%가 식수로 이용한 곳으로 1970년대에 없어졌다.

모든 제의 절차가 끝이 나면 당기를 뽑아들고 마을로 향하면서, ‘뱃고사를 모셔라’라고 외친다. 그러면 선주와 선원이 자신의 배기를 뽑아들고 자신의 배로 줄달음친다. 일종의 경주가 시작된 것이다. 배기를 모셔다가 배에서 뱃고사를 지내는데 먼저 지내면 용왕님을 모셔가는 것으로 여겨서 그 해에 별이가 좋다. 당기가 어른이므로 당기가 움직인 연후에야 비로소 배기들이 움직일 수 있다. 샘제를 마친 당기는 거두어 당주집에 보관한다.

o. 당맞이고사

샘제를 마친 후 배기를 들고 선주, 선장, 배동서들이 줄달음을 친다. 과거에는 배마다 당맞이 고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몇 가정만이 지낸다.

③ 거리제

거리제는 마을에 들어온 잡귀잡신을 몰아내는 제의이다. 명칭은 거리제라 하지만 그 대상신령은 장승이다. 마을로 들어가는 해안도로 오른쪽에 서 있는 장승 앞에서 거리제를 모신다. 과거 서낭당이 있던 시절에도 제의는 장승 앞에서 베풀어졌고, 장승이 소멸된 시기에는 도로 한쪽에서 베풀었다.

거리제 제일은 음력 정월 초여드렛날부터 열흘까지 중 대내림을 통해 정한다.

a. 장승깎기

장승은 거리제 날 제작한다. 거리제가 보통 여드렛날과 아흐렛날에 거행되므로 정해진 날 아침에 마을의 장년들이 나서서 벌목을 해온다. 장승을 제작하려면 먼저 화주는 일찍 일어나 집 앞에 황토를 두 무더기 놓는다. 거리제를 지내야 하니 부정한 사람은 출입하지 말라는 표시이다. 아침 일찍 장년들이 장승이 세워진 뒷 편 산에 올라가 벌목을 한다. 이때 산신이 노하지 말라고 산신제를 간단하게 베풀다.

화주집 앞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승 깎을 준비를 한다. 장비가 적당하지 않은 관제로 인근의 대목수를 불러 장승의 기본 윤곽을 잡도록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주민들 중 손놀림이 빠른 사람이 맡는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귀를 들고 나무 앞에 서서 조각을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눈여겨본 것이 고작인 주민들은 슬슬 장승의 윤곽

을 잡아나갔다. 오히려 주민들의 지시를 받아 뒷처리를 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b. 마을돌기

장승이 완성되면 장승을 메고 마을 한 바퀴를 돈다. 과거에는 장정이 큰 장승을 깎아 한 개씩 메고 마을을 돌았으나 노인만이 남을 마을에 힘 쓸 장정이 없으므로 장승을 트럭에 싣고 앞서면 그 뒤를 풍물패가 뒤따른다. 풍물패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골목골목을 돌아야 하므로 트럭은 천천히 움직인다. 화주집에서 시작된 행렬은 골목길을 지나 마을 끝 선착장까지 나아간다.

c. 거리제

거리제는 오후 5시경에 지낸다. 하루 온종일 놀다가 비로소 제의를 모시는 것이다. 풍물패는 해안을 따라서 장승이 있는 곳까지 풍장을 울리며 간다. 이렇게 온 마을을 빙둘러 풍장을 치고 나가는 것은 마을 안에 있는 온갖 액을 몰고 나가는 것이다.

화주는 장승 앞을 청소하고, 주변에 황토를 파다가 길 양쪽에 여러 무더기를 놓았다. 역시 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풍물패가 도착하자 화주는 바쁘게 제물을 진설한다.

장승 앞에 상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상마다 명태포, 삼색실과, 사과, 배 등을 올린다. 중앙의 상에는 흰무리를 시루째 올리고 그 위에 촛불을 밝힌다. 제물이 진설되는 동안 풍물패는 그 뒤에서 풍장을 울려 주었다.

진설이 끝나자 화주가 술을 각 상마다 한 잔씩 붓고 재배를 한다. 이때도 역시 풍장은 그치지 않았다. 그 앞에서 화주가 소지를 올리는데 모두 세 장을 올렸다.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마을의 안녕과 잡귀잡신의 구축을 기원하는 소지라고 했다. 소지를 마지막으로 제의가 끝이 나면 준비해간 양동이에 담긴 된장국에 제물을 모두 넣는다. 거리제에 사용한 제물은 음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양동이의 된장국에 넣었다. 큼직큼직한 사과와 배 등이 담긴 양동이는 금방 가득 찼으며 그것을 짚은 사람이 들고 장승 앞 건너 바닷가 쪽으로 나아갔다. 이때 부엌칼을 든 청년이 그 뒤를 따른다. 비스듬한 언덕 위에 서서 바닷가 쪽으로 양동이에 담긴 것을 붓는다. 주변에 있던 잡귀귀신을 풀어 먹이는 것이며, 사방에 힘껏 뿌린다. 제물을 모두 뿌린 후 양동이를 든 사람이 돌아서자 칼을 든 사람이 나서며 들고 있던 칼을 치켜올렸다가 힘껏 땅에 내리 쏜다. 칼끝이 깊숙히 땅속에 박히자 그 칼을 빼어들고 땅바닥에 칼끝으로 엑스(X) 자를 그리고 돌아선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제의 절차가 끝이 난다.

Ⅲ. 서해안 지역 동제의 활용 방안

1.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

1)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마을마다 동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령지방 마을의 지명을 조사해 본 결과, 당산·산제당·서낭당이 등의 지명이 모든 마을에 예외 없이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세계종교의 도입, 미신타파 운동, 새마을 운동 등으로 많은 마을에서 소멸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러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

보령 지방의 경우 육지에서만 23 개 마을에서 동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1개 면당 2곳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령 지방의 경우 아마추어 수준에서 조사하였을 뿐이고, 다른 시·군 지역에도 유명한 동제만 개별적으로 조사 보고 되었을 뿐, 전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자를 통하여 하루빨리 전수(全數) 조사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동제가 계속되어야 한다.

(1) 동제의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 주민들의 의식이다. 세계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동제를 신봉하고 실행하려는 사람들 간에는 대개 갈등이 있다. 동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행사로 그 자체가 마을의 무형문화재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주민 모두가 우리 마을의 동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전문학자들의 도움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동제와 관련된 당집, 산신도, 장승, 동기(洞旗), 제기 등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일이다. 당집의 복원에 있어서는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즘 시·군에서는 몇십, 몇백만원의 예산은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적어도 몇천, 몇억의 예산을 들여 당집을 크게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동제를 보존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된다. 복원은 원형에 가깝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주민들은 수 백년 동안 내려온, 조상의 숨결이 느껴지는 당집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새로 짓는다고 하여도, 과거 당집의 신체, 대들보, 동기(洞旗) 등은 철저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것들이 마을의 상징물이 되고 마을 주민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마을에서 위하는 신격을 정확하게 하여 그대로 복원하여야 한다. 남포면 제석리의 경우

산신국사신위(山神國師神位)를 가운데 모시고 좌우에 금부대왕신위(金傅大王神位), 일월성신(日月星辰)를 모신 당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원하면서 당집의 이름을 ‘경순왕경모전(敬順王敬慕殿)’이라고 붙여 언뜻 보기에 경순왕의 사당인 것처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제당 주변에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에는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키가 작고 굵게 자랐는데 주변에서 키가 큰 소나무가 자라 죽어가고 있다. 주변의 나무를 제거하여 수 백년 된 제당의 소나무를 보존해야 될 것이다.

(3)전문학자들을 동원하여 마을의 동제를 연구 정리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요즘 동제를 지내지 않는 큰 이유가 동제를 지내는 절차 등을 몰라서이다. 대개의 경우 어떤 신을 모시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하루빨리 각 마을의 특색있는 동제의 신격, 형식, 절차 등을 정리해 놓아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지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동제의 형식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특색있는 동제를 있는대로 조사 정리해 주어 그것을 보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축문을 잃어버린 동제가 많다. 잃어버려 찾지 못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남아있거나 한글로만 남아있는 축문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번역해 주어야 할 것이다.

(4)무엇보다도 전승자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동제를 주도해야 하는데 주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동제의 보존에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 행정력으로도, 예산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의 의식을 키우는 일이다.

(5)예산 지원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많은 액수를 지원하지 말고 수십만원이라도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 유지될 수 있고,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자생력이 없어져 지원이 끊기면 없어지는 관제동제가 될 것이다.

2. 동제의 활용방안

1) 마을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 친목도모를 위해 동제를 활용 할 수 있다.

동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함께 행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면서 마을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청소면 신송리 고삼 마을의 경우, 동제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일률적으로 거두어 빈부의 격차 없이 평등하게 제에 참여하고 있어, 동제가 지속되고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었다. 부자가 일시에 많은 돈을 내면 당장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은 초라해지게 된다.

성주면 성주리 먹방의 경우는, 서로 고향이 다른 광산노동자들이 거리제 마당에서 떡, 고기, 술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울리고 있었다.

2) 연계 관광 답사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황도 같은 유명한 동제의 경우 독립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독립된 관광자원으로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외연도의 경우 상록수림의 동백꽃 개화시기와 연계하여 당제를 실시한다든지, 섬의 다른 행사들과 연계하여 섬단위의 축제로 당제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집을 항상 깨끗이 정비하고 주변에 당제의 과정(사진 포함)과 의의 유래 등을 적은 안내판을 만들고, 봉화대, 명금해안, 상록수림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부각시키면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서천 마량리의 당집처럼 동백정에 관광 온 사람들이 당집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동백정 당집 옆에 당제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과 장승의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붙인다면 관광객은 자연스럽게 마을을 방문할 것이다.

남포면 제석리 마을 같은 경우는 당집도 복원되고, 진입로까지 포장되었으므로 원래대로 마을의 사방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동제를 주제로 한 안내판을 세운다면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문화체험 현장이 될 것이다. 다행히 제석리에는 장승 제작 전문가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동제는 1년에 1차례만 실시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해 시연(試演)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여주거나 판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즘 학교 교육은 체험학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향토문화 탐방 동아리 등 많은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이 동제를 조사해 보고, 참여하기도 해 본다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신목(神木)은 마을의 상징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다.

특징있는 신목의 경우는 주변을 정비하여, 마을의 상징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회관의 벽, 문 등에 그려 넣든지, 마을 입구의 안내판에 그려 넣어 마을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포구 단위의 축제와 연계할 수 있다.

전어축제, 굴축제, 대하축제 같은 포구 단위의 축제와 연계하여 풍어제를 올리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효경, 2001, 충남 서천의 마량리 당제, 「考古와 民俗」 제4집, 한남대학교 박물관
대천문화원, 1988, 「愛鄉」
대천문화원, 2001, 「保寧의 洞祭」
대천시지편찬위원회, 1994, 대천시지.
민속학회, 1998,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보령군지편찬위원회, 1991, 보령군지.
보령시, 1998, 「보령의 지명」 상·하.
이관호, 2001, 수룡동 당제.
이필영, 1994, 「마을 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이필영, 1999, 충남 서해 도서지방의 당제 연구 -외연도를 중심으로
최인학·최재욱·임재해, 1994,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충청남도, 1991, 충남지방의 장승 솟대 신앙.
충청남도·한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 1997, 「島嶼誌」.
황의호, 1999, 보령 지방 마을 신앙의 실태. 「考古와 民俗」 제2집, 한남대학교 박물관.
황의호, 2000, 가라티 마을 동제. 「考古와 民俗」 제3집, 한남대학교 박물관.
황의호, 2001, 지계굴 마을 동제, 「保寧文化 10집」